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원예요법이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한 영 숙

2009년 8월

원예요법이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

지도교수 박 태 수

한 영 숙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9년 8월

한영숙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2009년 8월

<국문초록>

원예요법이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

한 영 숙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태 수

본 연구¹⁾는 원예요법이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는지 밝히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원예요법은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원예요법은 소년원생들의 정서적 안정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위의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선정, 사전검사, 실험집단·비교집단의 구성, 실험집단의 원예요법 적용실시, 사후검사,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소년원생 17명이며 이들을 실험집단 8명과 비교집단 9명으로 구분하였다.

자아정체감 검사는 1975년에 서봉연이 개발하고, 성순옥(2001)이 사용한 자아정체감의 척도로 8개 영역 총 64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정서안정 검사는 미국의 CFSE(Culture-Free Self-Esteem Inventory)와 독일의 FSKN 검사(Die Frankfurter Selbstkonzeptskalen)를 토대로 김정규(2000)가 작성한 성신자기개념 검사 내용의 5개 하부영역 중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를 진단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총 29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 사용한 원예요법 프로그램은 전문적 원예치료의 실제와 전문적 원예치료를 위한 평가도구 및 프로그램을(손기철, 2006) 바탕으로 연구자가 연구과정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원예요법 프로그램의 실시는 본 연구자가 실시하였고, 매주 2회(월, 수요일) 90분~120분씩 총 13회기 실시하였다.

1) 본 논문은 200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14.0으로 이루어졌으며 통계적 유의미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실험 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은 자아정체감의 자기수용 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실험 후 가설 1을 분석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적 안정감의 경우 실험 전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 후 가설 2를 밝히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통계적 검증에 따른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활동과정에 대한 회기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상담자 관찰내용, 집단원 스스로 평가한 내 마음의 등고선, 사후 소감문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원예요법에 참여한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감은 사후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또한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독특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존재의식의 영역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둘째, 원예요법에 참여한 소년원생들의 정서적 안정감은 사후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원예요법은 청소년시기 발달과업 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아정체감 8개의 하위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위기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역할실험을 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원예활동을 통해 과거 자신의 경험을 반복하게 하여 갈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통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 결과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는데 연결 지음으로써 그 속에서 일관성과 연속성 있는 자기상을 확립하고 자신의 독특성을 인정하게 되며 자신감과 성취감 및 책임감을 높여주어 목표의식을 갖게 한다. 또한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와 역할 하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일깨워 자기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과잉공격, 위축행동 등의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켜 정서적 안정에 효과적임을 입증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수가 적어서 일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고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자 선정 및 환경 등을 통제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순간적인 충동과 욕구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원생들에게 원예는 실생활에서도 필요하고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정규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목 차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2. 연구의 문제 및 가설	3
3. 연구의 제한점	4
II. 이론적 배경	5
1. 원예요법의 개념	5
2. 소년원생의 특성	9
3. 자아정체감의 개념	13
4. 정서적 안정감의 개념	17
5. 원예요법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19
III. 연구방법	22
1. 연구대상	22
2. 실험설계	22
3. 연구절차	23
4. 측정도구	25
5. 자료처리	26
IV. 연구결과 및 해석	28
1. 연구대상의 동질성검증	28
2. 가설 검증	29
3. 질적 자료 분석	42
V. 요약, 결론 및 제언	58
1. 요약	58
2. 결론	61
3. 제언	62
참고문헌	64
Abstract	69
부 록	72

표 목 차

<표 II- 1> 목표에 따른 접근	20
<표 III- 1> 원예요법 프로그램	24
<표 III- 2> 자아정체감 검사의 하위영역별 내용과 문항구성	25
<표 IV- 1> 집단 간 사전 자아정체감 비교	28
<표 IV- 2> 집단 간 사전 정서적 안정감 비교	29
<표 IV- 3> 자아정체감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30
<표 IV- 4> 안정성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31
<표 IV- 5> 목표지향성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32
<표 IV- 6> 독특성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34
<표 IV- 7> 대인역할기대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35
<표 IV- 8> 자기수용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36
<표 IV- 9> 자기주장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37
<표 IV-10> 자기존재의식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39
<표 IV-11> 대인관계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40
<표 IV-12>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분석결과	41
<표 IV-13> 질적 자료 내용	43
<표 IV-14>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내용	44
<표 IV-15>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	45
<표 IV-16> 목표지향성과 관련된 내용	46
<표 IV-17> 독특성과 관련된 내용	47
<표 IV-18> 대인역할기대와 관련된 내용	48
<표 IV-19> 자기수용과 관련된 내용	49
<표 IV-20> 자기주장과 관련된 내용	51
<표 IV-21> 자기존재의식과 관련된 내용	52
<표 IV-22> 대인관계와 관련된 내용	53
<표 IV-23> 정서적 안정감과 관련된 내용	54

그림 목 차

[그림 II- 1] 원예요법의 적용과정	20
[그림 II- 2] 원예요법의 단계별 적용	21
[그림 III- 1] 실험 설계	22
[그림 IV- 1] 자아정체감 사전·사후변화	30
[그림 IV- 2] 안정성 사전·사후변화	32
[그림 IV- 3] 목표지향성 사전·사후변화	33
[그림 IV- 4] 독특성 사전·사후변화	34
[그림 IV- 5] 대인 역할기대 사전·사후변화	35
[그림 IV- 6] 자기수용 사전·사후변화	37
[그림 IV- 7] 자기주장 사전·사후변화	38
[그림 IV- 8] 자아존재의식 사전·사후변화	39
[그림 IV- 9] 대인관계 사전·사후변화	40
[그림 IV-10] 정서적 안정감 사전·사후변화	42
[그림 IV-11] 내 마음의 등고선	55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현실적으로 입시위주의 교육과 사람과 사물과의 관계가 더 이상 그리 지속적이지 않는 “mobile society”(강진령, 2006), 즉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는 성인으로 발달하기 위한 준비 단계이며, 인생진로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그러나 물질주의의 팽배와 상업적 경쟁의 심화로 학교 주변에는 갖가지 청소년 유해 환경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이런 생활환경, 매체환경, 성관련 요소들이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모방심리가 강한 청소년들에게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학생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정의하고 한정짓는데 어려움을 갖게 된다.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변화와 더불어 정신건강상의 균형을 잃어버리기 쉬운 시기이며, 내적 갈등이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G. Stanley Hall(1904)은 ‘청소년기는 질풍과 노도의 시기’라고 묘사할 정도로 정서적인 불안정을 큰 특징으로 꼽았다. 이러한 청소년기의 정서적인 불안은 청소년들의 행동과 밀접한관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심리적 부적응뿐만 아니라 행동상에 있어서도 사회적 부적응을 초래하기도 한다(허혜경·김혜수, 2003, 재인용).

청소년기의 심리적 불안정성은 자아정체감의 위기에서 오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정체성 확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Erikson(1960)은 1950년부터 10년간 청소년기에 대한 임상경험을 중심으로 자아정체감을 발전시켰고, 그의 저서 ‘자아정체감과 생애주기’에서 청소년시기를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시기 대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느끼는 시기라고 표현하였다.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탐색을 하며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자신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면서 현실을 점점 더 사실적으로 파악하기 시작한다. 미래와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과 갈등은 자아정체감의 혼돈을 초래하여 우울과 고통, 분노의 감정이

되어 인간관계나 학업 또는 직업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학업성취가 낮아진다. 또 인간관계가 비효과적이 되어 가족관계 및 친구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며 인생에 대하여 절망하고 삶의 기쁨을 포기하여 자신을 무용지물로 격하시키고 의존적이 되며 자신에게 절망해 버리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상태가 계속되면 심각한 부적응의 마지막 상태에 이르게 되고 이런 심리상태는 청소년기의 일탈 행동, 즉 생활의 황폐화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어 자신의 목표를 향해 포부를 펼치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한다(Erikson, 1980).

이처럼 청소년시기에 자아정체감이 확립되지 못하고 정서적 불안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일탈행위가 나타나 비행청소년이 된다. 이러한 비행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많은 선행 연구들이 있다.

하봉선(2006)은 원예요법은 열린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통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즐거움을 주어 청소년들이 열린 마음을 갖고 폭넓은 사회성과 바른 심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봤고, 나경미(2006)도 대안교육으로서 원예 활동은 청소년들이 21세기에 적합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들이 궁극적으로 자연과 더불어 공존하는 삶과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이 주체가 되어 본연의 모습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고 했고 단순한 기술보다는 그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치를 중요시하며 이러한 가치가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 외에도 김한석(2001)은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부적응 행동 특성에 미치는 연구에서 원예치료 프로그램 훈련을 받은 아동은 과잉행동, 공격행동, 위축행동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최근철(2002)의 연구에서도 원예치료가 아동들의 주의력 결핍과 충동적 과잉행동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기능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강상은(2003)도 원예치료가 아동의 게임중독과 공격성 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비행청소년들을 위한 원예치료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원예활동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생명체를 인식하게 하고 이로 인해 반사회적 행동을 감소시키며, 정서적 안정을 유도하는 것으로 사회에 나왔을 때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스스로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능력을 배양시키는 것이다.

그리고 원예활동은 음악요법이나 미술요법과 같은 다른 요법들에 비해 또 다른 특수성이 있는데 그것은 오감을 작동시켜 자연을 맛보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예활동은 비위협적이고, 비차별적인 식물을 매개체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의 거부감을 최소화할 수 있고(Lewis, 1975), 식물의 생활사를 관찰할 수 있기 때문에 대상자가 흥미를 잃지 않으며 불안과 긴장을 감소시킬 수 있다(Relf, 1981). 이는 Erikson이 자아정체감과 생애주기에서 개념들을 확립하였듯이 원예활동은 식물과 더불어 활동하는 동안 식물을 통해 삶을 관조할 수 있고, 또한 식물의 주기와 사람의 삶의 주기를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게 한다. 이처럼 자연을 경험해 볼 수 있는 원예요법은 청소년기정체성을 확립하기까지 많은 체험을 하는 과정에서 명확한 자기정의를 정리하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성을 촉진시킬 수 있고, 부정적인 정서와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간심신의 재활을 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원예요법을 소년원생들에 적용하여 그들의 자아정체감과 정서적 안정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2. 연구의 문제 및 가설

본 연구에서는 원예요법이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정서적 안정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데 있으며,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원예요법은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원예요법은 소년원생들의 정서적 안정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자아정체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1-1.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안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1-2.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목표지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1-3.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독특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1-4.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대인역할기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1-5.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자기수용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1-6.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자기주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1-7.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자기존재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1-8.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정서적 안정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3. 연구의 제한점

- 첫째 : 시설의 특성상 연구대상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으로 선정하는데 있어서 동질성을 사전에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둘째 : 원예요법 프로그램의 특성상 식물의 성장과정을 관찰하거나 배양할 수 있는 시기가 필요한데 실험시기가 계절적으로 (10월 중순~12월 초)적절하지 못해 실내에서만 이루어졌다.

II. 이론적 배경

본 장에서는 원예요법이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감형성과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원예요법의 개념, 소년원생의 특성, 자아정체감의 개념, 정서적 안정감의 개념, 원예요법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을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고찰해 보려고 한다.

1. 원예요법의 개념

원예치료는 Horticultural의 원예와 Therapy의 치료 또는 요법의 합성어로서 원예치료 또는 원예요법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치료는 보다 적극적이면서 직접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반면 요법은 치료보다는 수동적이고 간접적인 도움까지 포함한다는 이유와 각 의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호소력, 다른 비약물적 치료와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점차 원예치료라는 단어로 정착되었다(손기철외 4인, 2007).

원예치료의 이론은 Lewis와 Kaplan과 같은 사회학자와 심리학자, 조경학자인 Ulrish 등에 의해 다양하게 정의되었고 이런 이론들을 바탕으로 Relf가 재정립하였는데 원예활동의 기작(Mechanism)으로써 상호작용(Interaction), 활동(Activity), 반응(Reaction)을 제시하였다.

원예란 개인의 마음과 감정의 발달을 가져오고 공동체의 복지와 건강을 가져다 주며 현대문명 폭 안에 정원을 통합시키는 역할을 하는 꽃과 과일, 채소, 교목, 관목을 재배하는 기술과 과학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원예는 생산원예(식물들과 인간의 생존에 필수적인 다양한 산물들)와 사회원예(사람들-능동적이거나 수동적인 참여를 하는 개인이나 사회)를 포함한다(Relf, 1998).

원예치료의 의미는 크게 광의, 협의의 의미로 나눌 수 있고, 광의의 원예치료는 크게 능동적인 방법과 수동적인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능동적 방법은 지적능력

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원예적 신체활동인 토양 경작, 관수, 잡초 제거, 정원관리 등을 의미하며, 수동적 방법은 수동적인 참여로 식물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서로 상호 관련성이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사람은 자신감, 성취감을 얻게 되고 원예 전반에 관심을 갖게 되어 긍정적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많은 도움을 얻게 된다(서정근, 2000). 즉 기존의 원예개념이 식물을 대상으로 생산을 주목적으로 하는 과학과 기술로 보는 것이 협의의 개념이라면 환경과의 관계를 대상으로 식물 혹은 원예활동의 활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과학 기술로 보는 것은 광의의 개념으로 간주할 수 있다(김한석, 2001).

AHTA(American Horticultural Therapy Association)의 정의는 식물과 원예활동을 이용하여 인간의 사회적, 심리적, 교육적, 신체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통하여 인간의 몸과 마음, 영혼의 치유를 도모하는 과정이라고 규정짓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원예치료를 식물 또는 식물을 이용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사람의 정신과 신체의 작용을 개선 혹은 유지시키는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손기철, 2002).

Matsuo(1998)는 원예는 감각체험과 동작체험의 상호작용을 동원하여 발육하는 식물과 지속적으로 교재하는 활동이라 했고, 도요다 마사히로(1998)는 원예치료라 함은 “식물 또는 식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하여 사람의 정신과 신체의 작용을 유익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는 활동”이라고 했다(소인섭 등, 2007). 즉 원예치료는 식물 및 원예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 및 녹색의 쾌적성과 환경회복을 추구하는 전반적인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다(손기철 등, 2006).

원예치료 분야는 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에서 발전되어 왔으며 우리나라에는 최근에 도입되어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실질적인 보급은 미시간 주립대학에서 1955년 원예치료로 학사학위를 주었을 때부터이며, 캔사스 주립대학에서는 1971년부터 대학원에서도 원예치료 교육을 실시하였다. 1973년 원예를 통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전국 협의회(National Council for Therapy and Rehabilitation through Horticulture : NCTRH)가 조직되었고 전국 협의회(NCTRH)는 1987년에 미국 원예치료 협회(American Horticulture Therapy Association : AHTA)로 다시 바뀌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손기철 외 6인, 1997).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초에 처음으로 그 개념이 소개되었고, 한국 원예치료 연구회는 2001년 한국 원예치료 협회로 전환되어 원예학자 뿐만 아니라 정신의학, 예방의학, 자연치료의학 등 다방면의 학자들이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국 원예치료 협회 <http://www.khta.or.kr>).

다른 대체치료들과 구별되는 원예치료의 독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원예치료는 살아있는 생명을 매개체로 하는 것으로 식물의 성장, 개화, 결실 등의 변화하는 모습을 통해 무생물과는 다른 교감을 가지게 된다. 둘째, 자연의 변화를 통한 상호 역동적 활동으로 단순히 어떤 작업 과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와 식물간의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며, 대상자의 행동과 관심에 따라 식물 상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식물의 그런 반응을 보면서 자부심이나 책임감을 느낄 수 있다. 셋째, 창조적 파괴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장식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식물을 자르고, 꽃과 잎을 따서 말리고, 열매를 따는 등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만 그러한 행위가 단순한 생명 파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여 다양한 창작품을 만들면서 파괴를 예술로 승화시킨다. 넷째, 본능적 그리움에 바탕을 둔다는 것으로 식물의 녹색은 심리적 안정과 유연성을 줄 뿐만 아니라, 인간본연의 기호색인 녹색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소홀했던 자연과 접촉할 수 있다. 다섯째, 생명을 돌보는 치료방법으로 양육의 개념은 행위와 사고에 균형과 조화를 제공하며 이 균형은 획득과 양육의 조화에서 얻어진다고 했다. 식물의 양육과정은 평화를 가져다주며, 위협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으며 타인과의 대화를 발전시킬 수 있는 보편적인 화제의 대상이 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전인적인 접근과 전문적인 접근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특성이다. 원예활동이 의학적 토대위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행해질 때는 전인적이고 전문적인 치료방법으로 다른 대체의학이 줄 수 없는 효과를 줄 수 있다(손기철 외, 2006).

이러한 원예치료는 눈으로 보고 코로 향기를 맡으며 손으로 만지고 머리를 써서 움직이는 등 많은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교육적,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효과로 나눌 수 있다(손기철 외, 2006).

교육적 효과로서 원예활동은 살아있는 것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관찰력이 예민해져 이 관찰의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판단력과 대처능력을 배양시킨다. 이와 같은 경험의 반복은 모든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자신감을 갖게 하며(강대근,

2005), 또한 식물을 가까이 함으로써 신체의 오감을 통해 주위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준비, 또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켜 인지적이고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효과가 있다(손기철 외, 1997).

사회적 효과로서 원예활동은 양육행동과 사회적 기술들을 발달시키고 현대사회에 적용하기 위한 감각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원예활동은 쉽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여러 명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다. 그 일을 하기 위해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며 책임을 분담하거나 한 사람에게 그 그룹의 일을 책임지게 하면 지휘자의 정신도 경험하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 자립정신도 키울 수 있다. 또한 활동을 통해 자기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험도 갖게 되어 대인관계가 향상됨은 물론 자기의 존재가치를 일깨워 주고, 사는 보람을 갖게 하는 수단이 된다(손기철 외, 2002).

정서적 효과로서의 원예활동에 대해 Relf(1997)는 꽃의 종류, 색, 배합, 배열 등 꽃꽂이나 모듬심기, 정원 설계 등의 과정에서 창의력과 자아표현을 계발시킬 수 있다고 했다. 꽃의 줄기를 자른다든지, 정원에서 잡초를 뽑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부정적인 분노와 공격적인 감정을 완화시킴으로써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애정과 증오의 갈등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과 기술을 더욱 증진시킨다.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 미래에 대한 흥미를 상실한 사람들에게는 뿌려놓은 종자가 언제 싹이 트고 꽃은 언제 필까 하는 기대감과 다음 계절에는 더 아름다운 꽃을 피워야지, 내년 봄에는 정원에 무엇을 심을까 등 장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희망을 준다(김은아, 2003, 강대근, 2005, 재인용).

신체적 효과로써 원예활동은 운동부족에서 오는 근육과 체력쇠퇴를 예방하고 소근육과 대근육 운동에 도움이 된다. 손을 사용하는 것은 대뇌에 자극이 될 뿐만 아니라 손가락이나 손의 기능회복에 유효하고 꽃이 꽃힌 작품을 운반하는 것은 균형감각을 유지시켜 준다(손기철 외, 2002).

그 외에도 Matsuo와 Miyajima(1998)는 원예활동이 인간의 감각적 본능에서부터 영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단계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삭막하고 방향을 소실한 현대인들의 삶의 의미를 재조명해 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고 했다. 식물과 더불어 활동하는 동안 식물을 통해 삶을 관조할 수 있고 식물의 생활 주

기와 사람의 삶의 주기를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자신이 유용하고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또한 원예활동을 통한 자극은 긍정적인 심리적 반응을 야기하고, 이는 긍정적인 피드백으로 이어져 정서적 경험의 질을 증가시키며, 결국에는 행동처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원예요법은 심신의 재활과 회복,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살아있는 식물과 오감에 의해 교제하는 활동 또는 식물에 관련된 여러 가지 활동을 이용하는 전문적인 기술 및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2. 소년원생의 특성

소년원은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에 의하여 14세 이상 20세 미만의 범죄소년, 12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우범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법무부소속 교육기관이다. 소년원은 법원소년부에서 송치된 소년을 수용하여 교정교육을 행함을 그 의무로 하고 있으며 2006년 9월 기준으로 전국에 14개 소년원이 설치되어 있다.

소년비행이라 함은 “12세 이상 20세 미만의 소년에 대한 범죄행위, 촉법행위, 우범행위”를 말한다(문화체육부, 청소년백서, 1993, 431면). 여기서 “범죄행위”란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소년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말한다. “촉법행위”란 형벌법규를 위반하였으나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 행위이다. 그리고 “우범행위”란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을 지녔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는 행위이다. 또한 범죄성을 지닌 사람이나 부도덕한 사람과 교제하거나 타인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어 그 자체는 범죄가 아니지만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도 우범행위라고 한다.

따라서 청소년비행이란 법률 위반 여부를 불문하고 도덕적, 관습적 규범으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의 행위를 의미하고 비행청소년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사회적, 심리적 손상을 입혀 사회적, 통념적 기준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행동을 하는 청소년이라 할 수 있다.

청소년기 비행은 발달단계상 과도기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심신 미숙, 부족한 판단력과 자제력, 단순하고 충동적인 성향 등 그 원인과 특성 면에 있어서 성인 범죄와 다르다. 청소년은 비행을 저질러도 아직 범죄가 습성화되지 않고 긴 미래가 남아있다는 점 등 회복 가능성이 많다(이무웅, 1992). 그래서 국가에서는 성인범죄와는 다르게 청소년비행을 다루고 있다. 현재 국가는 비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사회로부터 보호하고 재비행 방지를 위해 소년원에 일정 기간 보내어 상담 및 인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다.

소년원의 교정교육은 규율있는 생활 속에서 보통교육(학교교육), 직업훈련, 심성순화활동(인격교육), 심신의 보호지도를 통해 소년이 퇴원 후 사회생활에 원만히 적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교과교육소년원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등학교, 중학교 및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소년원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지식정보사회에 필요한 직업능력 배양을 위해 1999년부터 교과교육 중심의 소년원 교육체제를 실용영어와 컴퓨터 중심의 특성화교육 체제로 바꾸었으며, 이후 특성화교육을 보다 다양화, 전문화하기 위해 체육소년원 및 예술소년원을 개원하였다.

소년원에서는 6호처분자를 단기과정, 7호처분자를 일반과정으로 칭하고, 7호처분자의 경우에는 처우과정 분류기준에 따라 일반A과정, 일반B과정, 일반C과정으로 세분하여 수용기간을 정하는데, 단기과정은 6개월 미만, 일반A과정은 6개월 이상 13개월 미만, 일반B과정은 12개월 이상 16개월 미만, 일반C과정은 15개월 이상 19개월 미만이다.

비행을 저지른 소년범의 절대적인 수는 1997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청소년 인구가 80년대 초부터 점차 감소한 것을 감안한다면 인구대비별 소년범은 줄어든다고 보기 힘들다. 소년범의 재범률도 대검찰청(2006)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는 소년범 중 재범률이 39.2%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05년을 기준으로 6년간 평균 36.4%의 재범률을 보였다. 범죄의 내용도 과거와는 달리 흉악화, 조직화, 지능화되고 비행연령도 낮아져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이수정, 2004).

청소년들의 정서는 격렬하고 쉽게 동요하는 속성이 있어 충동적이고 우발적으

로 비행을 저지르는 특성이 있다.

Maslow(1965)는 모든 인간이 자존감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욕구가 충족된 경우 자신을 가치있게 여기고 본인에 대해 유용감을 갖게 되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열등감을 갖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 감정을 갖게 된다고 했다. 또한 Rogers(1974)도 청소년은 자기이해에 대해 놀라울 정도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 스스로 자각하는 자아와 다른 사람이 보는 자아간에 불일치가 발생하면 부적응 문제를 유발하게 되고 이러한 결과로 불안, 방어, 왜곡된 사고를 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은 문제행동을 유발시킬 수 있고, 본인에 대한 낮은 자존감은 부정적 정체성과 연결될 수 있다.

청소년기 비행의 개인적 원인은 개인의 생물학적 특성 또는 심리학적 특성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청소년기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생물학적 변화이며 이와 더불어 인지적, 성격적, 정서적 변화를 함께 수반한다. 이런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기본적인 변화와 환경적인 요인은 청소년들의 심리적인 특성(친밀감, 도덕성, 성적관심, 자율성 등)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임영식, 한상철, 2006).

심리학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Freud의 정신분석이론은 법 위반행위는 인생초기에 형성되어 그 이후의 인간행위 선택 과정을 통제하는 비정상적인 성격구조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청소년비행 행위는 원 본능에 의해서 본능적인 욕구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을 자아와 초자아가 적절하게 통제하지 못하면 나타나게 된다고 했고, Erickson(1968)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인생의 목표에 대해 감정적이고 충동적이며 확신하지 못한 상태를 느끼게 되면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에 직면하는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이때 비행행위를 저지르기 쉽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Abrahamsen(1944)도 학대와 부적절한 취급을 받은 아이들은 분노와 공포, 증오의 무의식적인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감정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으면 나중에 비행행위를 저지르게 되며, Brandt and Zlotnick(1988)도 반사회적 청소년들은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랑을 주고 일관된 행동의 한계를 제시해 주며 세상에 맞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개인적인 능력을 위한 적절한 통제를 제공할 능력이 없는 부모들이 있는 가정으로부터 나타난다고 했다(허혜경·김혜수, 2003, 재인용).

행동이론에서는 개인이 그들의 행동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를 관찰하는 것을 통해 배우게 되고 행동은 환경 내에서의 자극이나 변화에 의해서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어떠한 경우이든지 보상을 받는 행동은 모방이 되고 처벌을 받은 행동은 피하게 된다는 것으로 이런 관점이 암시하는 바는 폭력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가정환경에서 자란 청소년들은 부모가 말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행동하는 것으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집 밖에서 다른 청소년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게 되고, 심지어는 가족성원이나 형제, 자매에게까지 공격성을 표출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가정은 청소년이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상황에서 물리적 폭력을 가하는 것을 규범으로 인식하도록 도와줌으로써 폭력에 대한 훈련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Carlson, 1986).

인지이론을 도덕적 발달단계에서 보면 Kohlberg 등(1973)은 범죄자들은 사회적 배경이 비슷한 일반인에 비해서 도덕적 판단의 발달단계상의 위치가 상당히 낮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Greening(1997)도 정보처리능력 면에서 비행청소년들은 일반 청소년 보다 시간 관념이 철저하지 못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다루거나 해결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했다. 또한 Hirschi와 Hindelang(1977)도 낮은 지능지수를 가진 청소년들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 학교생활에서의 실패와 부진한 학업성취는 비행행위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고 했다. (허혜경, 김혜수, 2003, 재인용).

인성이론에서 Hare(1980)는 비행이란 인간의 심리적 틀 내에 존재하는 저변의 갈등이 표출된 것이라고 말한다. 범죄자의 인성적 특성으로 정신병적 성격을 제시하면서 충동적이고 쉽게 흥분하며 쉽게 지루해하고 죄의식이 약하고 이기적 이어서 남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고 감정이입이 낮은 특성을 갖는다고 주장했다(김준호 등, 2003, 재인용).

이런 점에서 볼 때 소년원생들은 발달단계상 과도기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심신미숙, 부족한 판단력과 자제력, 단순하고 충동적인 성향 등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비행을 저지르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들의 비행은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능력을 위한 자원을 제공받지 못하고, 폭력 행위 등 가정환경 내의 자극이나 변화에 의해 학습되어서, 혹은 낮은 지능지수로 인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도덕적 판단력이 낮은 요인 등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3. 자아정체감의 개념

자아정체감(ego identity)이란 자기 동질성과 연속성의 자신감을 가지면서 사회 환경의 자극과 내적인 욕구 및 가치를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재통합하여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다. 즉 자신이 타인과는 구별되어지는 독립적이고 고유한 존재라고 인식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동시에, 외적인 자극, 환경, 감정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관되게 자신을 인식하여 안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청소년기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다양한 역할들을 조사하고 이런 역할들을 정체성으로 통합하는 시기이다.

Erikson은 정체감을 심리사회적 정체감(Psychosocial identity)과 개별적 정체감(individual identity)으로 나누고 있다. 심리사회적 정체감은 개인이 속하고 있는 사회나 집단에 대한 소속감을 의미하며, 개별적 정체감은 개인적 정체감과 자아정체감으로 나눌 수 있다. 저서를 통해 나타난 정체감의 의미를 살펴보면 첫째, 자아정체감은 한 개인이 소유한 지위와 역할에 따른 다양한 ‘~으로의 나’ 간의 통합감을 의미한다. 이는 실제적인 존재에 대한 숙고이다. 둘째,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이르기까지 자아에 대해 일관되고 안정감 있는 시간적 연속감이다. 셋째, 내가 내 자신을 지각하는 주체적 자아와 다른 사람 눈에 비쳐진 객체적 나간의 조화감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조화감이 깨지는 경우 부적응 행동이 빚어지기 쉽다. 넷째, 실존적인 자아 상태를 의미한다. 나 자신은 누구로부터의 간섭도 용납하지 않는 자유를 지니지만 오직 나 혼자만이라는 근원적 소외감을 지닌 존재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소외감을 극복하고자 책임을 수반하는 자기 선택을 하게 되며 자아와 타아와의 만남은 불가피하다. 이와 같은 자아정체감의 의미는 상호관련이 되어 있다고 했다(허혜경·김혜수, 2003, 재인용).

서봉연(1988)은 자아정체성이란 대인관계, 역할, 목표, 가치 및 이념 등에 있어서 자기가 지니는 고유성에 대한 자각과 이에 대한 부합되는 자기통합성과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 무의식의 노력으로 보고 있다.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전 생애에 걸쳐 이루어지는 과업이지만 청소년기에 중요하게 부각되는 이유는 청소년들이 직면한 몇 가지 내적, 외적인 상황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청소년기는 신체적, 심리적, 성적인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이다. 청소년들은 사춘기를 시발점으로 내적인 충동과 성적인 성숙의 정도가 심해진다. 둘째, 청소년기의 가일층 발달된 인지능력은 자아정체감을 확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형식적 조작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존재에 대해 숙고하며 자신의 능력, 가치관, 진로를 검토하며 방황과 자기 탐색의 시간을 가진다. 셋째, 청소년들은 아동은 아니지만 어른도 아닌 애매한 입장에 놓여 있다. 신체적으로는 성인이지만 정서적으로나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부모에게 의존하는 주변인이다. 넷째, 청소년기는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시기이다. 자신의 진로에 대해 한시적이건 영구적이건 중요한 선택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혼자만의 능력이나 판단으로는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며 자신의 삶이기 때문에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지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가능한 한 자기 자신의 다양한 면모를 탐색하고 검토하면서 사회적인 대인관계와 역할하에서의 자신을 이해하고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다섯째, 자아정체감 형성은 자신과 다른 사람을 행동과 가치를 내면화하는 메커니즘인 동일시에 그 근원을 둔다. 청소년들은 기존의 동일시 내용의 일부는 보유하기도 하지만 비판을 하면서 과감하게 해체를 시도하기도 한다.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의 형성을 위해서는 과거 개인의 참조 체제를 선택하고 현재 새롭게 내면화한 동일시 내용 및 미래 계획과 포부를 역동적으로 통합하고 재조직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허혜경·김혜수, 2003).

Erikson은 전 생애에 걸친 인간발달을 8단계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그의 저서 ‘자아정체감의 문제’ (The problem of Ego Identity, 1959)와 ‘자아정체감 : 청소년과 위기’ (Identity : Youth & Crisis, 1968)에서 청소년기를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으로 규정하고 있다. 사춘기를 기점으로 시작되는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이라는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이 시기 발달 과업 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등과 같이 자신에 대해

의문을 갖고 그 해답을 찾고자 하는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역할실험을 하게 된다. 자아정체감을 획득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독특성을 인정하고 자신의 존재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해 포부를 펼치며 개인의 성장과 발달을 촉진한다. 대조적으로 자아정체감 위기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 자신의 역할과 정체감의 혼란을 경험하여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지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이 동일시해 왔던 부모의 모습을 완전히 거부하거나 비판적인 태도를 지니게 되기도 하며 반면 자신이 좋아하게 된 사람과는 과잉 동일시하게 되기도 한다. 또 자기를 상실하거나 지나치게 억압하기도 하며 가출, 무단결석 등과 같은 비행에 빠지기도 한다.

Marcia(1980)는 Erikson의 이론을 토대로 위기와 관여라는 두 개념을 적용하여 자아정체감 수준을 네 가지 성취지위로 범주화하였다. 정체감 성취와 정체감 유예상태의 청소년들은 정체감 유실이나 정체감 확산 상태의 청소년들보다 사회적 환경에 잘 적응하며 좀 더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협동적이어서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점에서 공통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했으며, 자아정체성이란 여러 가지 충동, 노력, 신념 및 개인의 생활사 등의 자체 발생적인 내적, 역동적체계인 자기구조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자아정체감 위기의 의미로 볼 때 청소년기에는 자아정체감이 형성, 발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인 혼란이나 실망을 통해 자아정체감의 위기를 체험하게 됨을 알 수 있으며, 정체감을 확립하기까지는 많은 체험을 조정하고 하나의 명확한 자기정의(self-definition)로 정리하는 과제로서 어렵고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다. 결국 자아정체감의 위기 극복은 본래 있어야 할 자신을 구축해 나가는 건전한 인간으로서의 성숙과정이라고 할 수 있으며, 자아정체감의 위기는 그때까지의 정체감, 현재의 가치, 장래의 목표를 종합하여 일관된 자기를 형성하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박점용, 2001).

Erikson의 이론에서 청소년기 정체성의 위기는 다음의 세 가지 목표가 달성될 때 극복된다. 첫째는 자신에 대한 인식의 연속성(continuity)과 동질성(sameness)의 확립이다. 정체성 탐색과정에서 청소년들은 과거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고 그 결과를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는데 연결지음으로써 과거의 자신과 현재의 자신간의 연속성을 바탕으로 미래의 가능한 자신의 모습을 탐색하게 된다. 이처럼

림 자아탐색의 시간조망이 과거와 미래로 확장되고 그 속에서 일관성과 연속성 있는 자기상이 확립되면서 자아정체성이 확립된다. ‘나는 마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는 아니고, 내가 되고 싶어 하는 나도 아니고, 과거의 나도 아니다.’ 라는 표현은 시간적 연속성상의 정체성 탐색 과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정체성 확립의 두 번째 목표는 상이한 관점과 시각에서 서로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자아의 여러 국면을 일관성있는 하나의 자아체계로 통합(integration)하는 것이다. 이러한 통합은 다양한 역할과 입장들이 서로 얽혀있는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생활해 나가야 할 성인기 삶의 준비를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의 자아에 대한 자신과 타인의 견해,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타인의 견해, 직업, 성, 종교, 정치 등 각 영역에서의 자아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통합하여 일관성있는 하나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여러 영역의 자아들 간의 상호관련성이 형성되면서 자아정체성이 확립된다.

정체성 형성의 마지막 목표로서 자신의 독특성(uniqueness) 또는 특수성(distinctiveness)의 확립을 들 수 있다. 청소년기 부모로부터의 독립은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독특성을 탐색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그러나 한편 성인기를 준비하면서 타인들로부터 인정과 지지를 받기 위한 동조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청소년기 동안에 강화된다. 청소년들은 독립과 공조라는 두 필요성을 통합해가면서 자신의 독특성을 탐색함으로써 정체성을 확립하게 된다. 이 경우 독특성의 확립에 실패하면 또래집단에 지나치게 동일시하거나 사회적 고정관념에 맹종하는 부정적 정체성을 초래한다. 청소년기 동안 정체성 탐색의 목표들이 획득되면 긍정적 정체성을 확립하게 되며, 실패할 경우에는 부정적 정체성에 빠져들게 된다(송명자, 1995).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자아정체감이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으로 개인의 자아가 사회 환경의 자극과 내적인 욕구 및 가치를 자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방식으로 재통합하여 자기 동질성과 연속성의 자신감을 가지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하여 안정적인 느낌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으로는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대인관계가 있다.

4. 정서적 안정감의 개념

정서란 마음에서 일어나는 기쁨, 노여움, 사랑, 걱정, 공포 등의 여러 가지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가리킨다. 마음이 움직이고 감동된다는 점에서 정동(情動)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곧 정서라고 하기 보다는 정서는 마음의 한 형태로 마음 밖으로 발현되는 상태를 가리킨다. 정서에 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상황적 요소, 생리적 요소, 인지적 요소다.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이들 세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임영모, 2008).

정서의 성분과 기능은 양극을 이룰 만큼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의 방향이나 초점에 따라서 다른 해석이나 정반대의 주장이 가능하다고 했다(김주자, 1999). 이러한 형태적 특성은 정서의 개념 정의를 어렵게 하지만 철학자와 심리학자들의 공통적인 관점은, 정서는 ‘느끼는 것이다’ ‘평가적 기능을 갖는다’ ‘인지적 성분을 갖는다’ ‘행동이나 학습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정리할 수 있다.

삶의 영역별 심리적 안녕에 대한 연구들의 결과는 다양하지만 심리적 안녕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된다. 첫째는 정적인 정서이며, 둘째는 부적인 정서, 마지막으로 생활 만족이 그것이다(Andrew & Withey, 1976). 정적인 정서란 즐거움, 행복 등과 같이 유쾌한 정서나 감정을 말하는 것으로 정적인 정서가 높다는 것은 원기가 넘치고, 충분한 집중, 환경과의 유쾌한 상호작용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유능하고 상황에 적절한 행동과 관계되며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낮은 정적인 정서는 슬픔과 무기력의 상태를 말한다. 반면 부정적 정서는 두려움, 분노와 같은 불쾌한 정서나 감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높은 수준의 부정적인 정서는 주관적 혼란과 혐오적인 기분 상태를 말하며 공감적 반응과 친사회적 행동을 파괴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낮은 수준의 부정적인 정서는 침착하고 평온한 상태를 말한다. 부정적 정서는 변별될 필요가 있다. 부정적 정서인 분노를 억제하고 긍정적 정서인 기쁨을 고양시키는 것이 정서 규제이다. 정서를 규제하는 것은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것과 상관된다. 자신의 정서를 이해하고 상대방의 정서를 알면 자신의 정서를

통제하여 상황에 적절하게 표현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서표현을 통제하는 능력은 타인의 욕구를 알아차리는 능력을 예언해 주며 이는 친사회적 행동의 주요 결정요인으로써 청소년의 사회관계에 영향을 준다. 정서 규제는 그 정의에서 보듯이 정서각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박선미, 2006).

심리적 안녕감의 정서적 측면을 처음으로 다룬 사람은 Bradburn(1969)으로서 정적인정서와 부적인 정서는 서로 독립적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입증하였는데 행복은 정적인 정서와 부적인 정서를 비교하여 얻어지는 전반적인 평가라고 가정하고 이 두 척도간의 점수를 구하여 그 사람의 행복감 수준으로 삼았다(강대근, 2005, 재인용).

Andrews와 Rovinson(1991)은 심리적 안녕은 주관적이고 전반적인 심리적 안녕감을 말하고 인생전반 혹은 인생전체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 정도를 의미하며 원예활동은 심리적 안녕감과 관계가 있다고 했다(강대근, 2005, 재인용).

Matuso(1997)는 원예활동 과정의 매력은 타 활동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안정감과 평화감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원인에 기인하여 현대를 사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자연에 재접속하고 원예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바람을 증가시키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자연의 조화를 감상하고 관찰하며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행위들은 다양한 지각경로를 통해 감지되고 분석되어지지만 결국은 “긴장의 이완 및 휴식”을 주는 평안감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고 하면서 원예로부터 얻는 가장 큰 만족을 “변화를 통한 안정성”이라고 언급하고 있다(신조, 2005. 이등, 2003, 재인용).

원예치료의 정서적인 효과는 식물은 환경요인만으로도 정서 효과가 크지만 향기식물을 매체로 한 원예활동에 의해 그 효과를 증폭시킬 수 있다고 하였고(이영현, 2002), 김한석(2001)은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의 건강과 안정을 찾기 위해 축소된 자연에로의 초대인 원예활동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식물을 이용한 원예프로그램을 만들어 활용함으로써 과잉행동, 공격행동, 위축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안정에 큰 효과를 기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윤순구(2001) 서정근(2007) 등은 식물을 기르고 가꾸는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재배활동은 정서적으로 불완전한 상태에 있는 아동들의 정서순화 및 협동성, 사회성, 도덕성 함양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Davis(1995)는 원예치료 또는 식물놀이를 통해 병원의 아동들이 지니고 있는 두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었고 어머니와 자녀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측면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였고, 하봉선(2006)은 원예요법의 체험위주의 학습을 통해 자신감과 성공감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익힘으로써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안정을 향상시키며, 열린 경험을 제공하는 역할을 통해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즐거움을 주어 청소년들이 열린 마음을 갖고 폭넓은 사회성과 바른 심성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부적응 행동을 감소시키고 정서 안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정서적 안정감은 정적인 정서와 부적인 정서를 비교하여 얻어지는 전반적인 평가로 주관적이며 인생전반 혹은 인생전체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원예요법 프로그램의 구성과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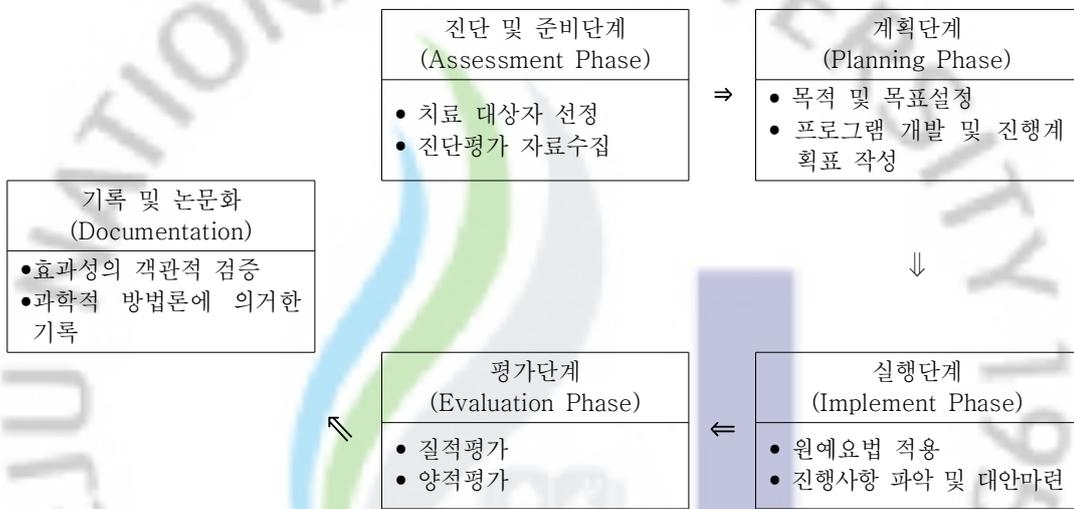
1) 프로그램의 구성

원예요법 프로그램을 기존 사례 연구에서 살펴보면 박정순(2002)은 재배현장 체험, 이명철(2003)은 1화분 가꾸기, 학교 뒷산 생태조사하기, 식물채집, 채소묘종 가꾸기, 국화꽃 감상하기 등, 송진희.(2004)는 장식 활동과 재배활동, 이민정(2006)은 기르기 프로그램과 꾸미기 프로그램, 하봉선(2006)은 학교 숲 가꾸기, 나의 꽃 정하기, 비누 만들기, 나의 화분 만들기, 허브식물로 화분포장하기 등으로 구성했다. 이러한 사례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원예요법 프로그램은 식물심기 및 관리, 꽃 장식, 공예, 기타 원예활동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 프로그램에서는 식물심기 및 관리는 다육식물심기, 포인세티아심기, 분화식물심기, 걸이화분 허브미니가든, 꽃 장식은 꽃 한 송이 포장, 꽃꽂이, 공예는 솔방울 색 입히기, 솔방울리스 만들기, 잡곡액자 만들기, 종이꽃 만들기를 구성요소로 한다.

2) 적용

원예요법이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작성 시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과정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원예요법의 적용과정은 진단 및 준비단계, 계획단계, 실행단계, 그리고 평가단계의 순으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은 체계적인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치료와 대상자의 상황을 보다 명확히 인식하게 해 준다. 그 과정을 도식화하면 아래 [그림 II-1]과 같다.



[그림 II-1] 원예요법의 적용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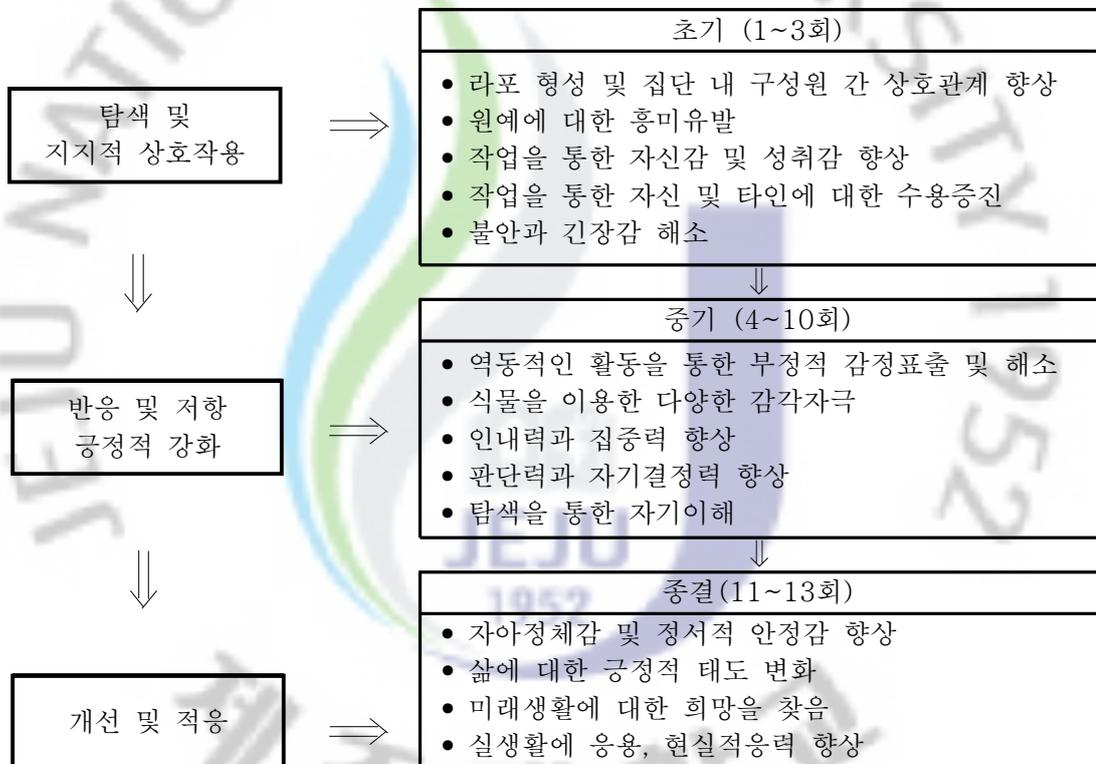
출처 : 손기철, 김수연, 이손선, 송종은, 조문경(2006). 전문적 원예치료를 위한 평가도구 및 프로그램 P64.

또한 소년원생들에 대한 원예활동 목표를 인지능력 발달, 정서 심리적 발달, 사회기술 습득으로 나누고 그 활동내용을 제시하면 <표 II-1>과 같다.

<표 II-1> 목표에 따른 접근

인지적 발달	정서 심리적 발달	사회기술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중력, 사고력, 탐구력 향상 문제해결 능력 강화 원예지식 습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책임감 습득 생명의 소중함 익힘 자신감과 성취감 향상 정서적 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타인에 대한 존중 익힘 대인관계 익힘 자기주장 능력증가

또한 적용절차는 초기, 중기, 종결로 나누었으며, 초기(1~3회기)에는 라포 형성 및 집단구성원 간 상호관계 향상, 흥미를 유발하여 불안이나 긴장감 해소, 자신감 및 성취감 향상에 초점을 두었고, 중기(4~11회기)에는 역동적인 활동을 통해 수행해온 작품들을 관리하고 가꾸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탐색이 이루어져 개인적 문제를 표출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이 이어져 정서적 경험의 질을 증가시키는데 역점을 두었다. 종결에서는 연구목표에 준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요약하면 [그림 II-2]와 같다.



[그림 II-2] 원예요법의 단계별 적용

Ⅲ. 연구방법

본 장에서는 원예요법이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감 형성과 정서적 안정감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연구한 방법 즉 연구대상, 실험설계, 원예요법 프로그램, 측정도구, 자료처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소년원(H중학교)생 17명이며 이들을 무선 표집 하여 실험집단 8명과 비교집단 9명으로 구성하였다.

2. 실험설계

본 연구는 실험 처지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사전-사후의 두 차례에 걸쳐 자아정체감검사와 정서적 안정감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 설계를 도식화 하면 [그림 Ⅲ-1]과 같다.

실험집단(G_1)	O_1	X	O_2
비교집단(G_2)	O_3		O_4

O_1 , O_3 : 자아정체감 사전검사
 O_2 , O_4 : 자아정체감 사후검사
X : 원예요법프로그램 실시

[그림 Ⅲ-1] 실험설계

사전 검사(O_1 , O_3)로서 소년원생들에게 자아정체감과 정서적 안정감 검사를 실시하고, 실험집단에는 실험 처치(X)를 가하고 비교집단에는 아무런 실험처치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집단에 사후 검사(O_2 , O_4)를 실시한 후 이들 두 집단의 사전-사후 검사치의 차이로써 실험처치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3. 연구절차

1) 연구의 진행 절차

이 연구의 과정은 실험집단·비교집단의 구성, 사전검사, 실험집단의 원예요법 적용 실시, 사후검사,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사전검사 실시 후 원예요법 프로그램에 참가할 학생을 무선표집하여 실험집단 8명과 비교집단 9명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에는 프로그램을 적용·실시하였고 비교집단에는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원예요법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2008년 10월 13일~11월 26일까지 주 2회(월, 수요일) 90분~120분씩 총13회기 실시하였다.

프로그램 실시를 끝낸 후 사전검사에 실시했던 동일한 검사도구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2) 원예요법 프로그램

본 연구에 사용한 원예요법 프로그램은 전문적 원예치료의 실제와 전문적 원예치료를 위한 평가도구 및 프로그램을(손기철, 2006) 바탕으로 계절,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에서 활용하기 용이하고, 준비물이 까다롭지 않으며, 즐기면서 성공의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연구자가 연구과정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특히 재료나 도구가 무기화 될 수도 있다는 점에 유념하여 실행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각 회기별 주제와 활동내용은 다음 <표 III-1>과 같다. 전체 프로그램의 회기별 내용은 부록으로 제시하였다.

<표 III-1> 원예요법 프로그램

횟수	프로그램 명	활동내용	기대효과
1	자기소개 및 OT 꽃 한 송이 포장	별칭 짓기 및 자기소개 간단한 포장법 배워 짝꿍에게 선물하기	친밀감형성 및 동기유발 긴장완화, 신뢰감형성
2	솔방울 색 입히기	솔방울에 색 입히기 자신은 어떤 색이며 어떤 색을 입혀보고 싶은지	자신에 대한 이해 표현력향상
3	솔방울 리스 만들기	색 입힌 솔방울과 마른 수국을 이용하여 리스 만들기 식물의 주기와 나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	나의 위치에 대한 자각 성취감향상
4	다육식물심기	그린 볼 이식하기 그린 볼에서 무엇이 나왔으면 좋은지	자신의 욕구탐색 자신에게 내재된 자원이해
5	잡곡 액자 만들기	잡곡을 이용하여 액자 만들기 나의 액자에 어떤 그림을 그려 놓고 싶은지	삶의 목표탐색 집중력, 창의력향상
6	종이꽃 만들기	주름지를 이용한 종이꽃 만들기 나는 어떤 꽃으로 피어나고 싶은지	문제해결 능력증대 긍정적 사고로의 전환 자신의 꿈 탐색
7	포인세티아 심기	포인세티아를 화분에 이식하기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보자	긍정적 사고증진, 책임감 향상, 대인관계증진
8	분화식물 심기	화분에 분화식물들을 심기 나의정원엔 어떤 식물들을 심고 가꾸고 싶 은지	사고력 및 책임감 증진, 자기존재의식 향상, 미래에 대한 탐색
9	걸이화분 만들기	대나무 통에 초화류 심기 수행한 작품은 어디에 걸어두고 싶은지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생명체간 상호관계이해 자신의 위치와 역할에 대한 자각, 존재가치의 소중함 이해
10	수경재배	개운죽 심기 나는 어디에서 어떤 에너지를 지원받고 성 장하고 있으며 자원은 무엇인지	생명체에 필요한 자원이해 환경에 대한 자신의 태도 탐색, 자신에 대한 이해
11	허브 미니가든 만들기	허브종류를 화분에 이식하기 나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는지	자신에 대한 정체성 탐색 자기이해력 향상, 정서순화 자신의 독특성발견
12	꽃꽂이	국화꽃을 바구니에 꽃꽂이하기 누구에게 꽃을 선물하고 싶은지 의미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자	분노나 공격성발산 정서적 안정감
13	평가하기	차를 마시며 평가서 및 소감문 작성	

4. 측정도구

1) 자아정체감검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도구는 1975년에 서봉연이 자아정체감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에서 개발하였으며, 성순옥(2001)이 사용한 자아정체감의 척도로 하위영역의 내용은 안정성(1,16,23,30,44,51,57,58), 목표지향성(2,9,24,31,38,45,52,59), 독특성(3,10,17,32,39,46,53,60), 대인역할기대(4,11,18,25,40,47,54,61), 자기수용(5,12,19,26,33,48,55,62), 자기주장(6,13,20,27,34,41,56,63), 자기존재의식(7,14,21,28,35,42,49,64), 대인관계(8,15,22,29,36,37,43,50)의 8개영역 총 64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채점은 5점 척도로 하였다. 전체문항 중에서 2,4,6,7,8,9,10,12,14,16,18,20,21,22,24,26,28,30,34,36,38,40,42,44,45,46,48,49,50,52,56,58,60,62,64 문항은 부적 방향이므로 역산 처리했다. 본 연구에서 자아정체감의 신뢰도(Cronbach's α)는 .636으로 나타났다. 하위영역에 대한 정의 및 문항 수는 <표 III-2>과 같다.

<표 III-2> 자아정체감검사의 하위 영역별 내용과 문항구성

하위 영역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안정성	시간의 경과와 유동적인 대인관계 속에서도 일관되고 동질적인 '나'에 대한 생각과 느낌	8	1,*16,23,*30,*44,51,57,*58
목표지향성	자신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자기 행동의 방향과 자신의 요구에 대한 인식	8	*2,*9,*24,31,*38,*45,*52,59
독특성	현재의 능력, 신체적, 심리적 특성 면에서 타인과 비교, 구별되는 자아상	8	3,*10,17,32,39,*46,53,*60
대인역할기대	타인과 인간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	8	*4,11,*18,25,*40,47,54,61
자기수용	자기가 속한 사회와 문화의 규준에 비추어 받아들여지거나 거부되는 자아상	8	5,*12,19,*26,33,*48,55,*62
자기주장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의식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태도와 경향성	8	*6,13,*20,27,*34,41,*56,63

하위 영역	내용	문항수	문항번호
자기존재의식	어떤 것이 나의 존재에 대해 가장 핵심적인 자아상인가하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8	*7,*14,*21,*28,35,*42,*49,*64
대인관계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 자신이 취하는 일반적인 경향성을 의미	8	*8,15,*22,29,*36,37,43,*50
자아정체감 전체		64	

*는 부적 문항임

2) 정서적 안정감 검사

이 연구에 사용한 정서안정검사는 정서의 안정 상태 여부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미국의 CFSErjatk(Culture-Free Self-Esteem Inventory)와 독일의 FSKN 검사(Die Frankfurter Selbstkonzeptskalen)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게 김정규(2000)가 새롭게 문항을 작성한 성신자기개념검사 내용의 5개의 하부 영역 중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를 진단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정서안정검사 척도만 사용하였다. 이 검사는 총29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각 문항의 채점은 5점 척도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서적 안정감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79로 나타났다.

5. 자료처리

1) 양적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14.0으로 이루어졌으며 통계적 유의미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 ① 실험 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 ② 실험 전 두 집단의 동질성을 분석한 결과, 두 집단은 자아정체감의 자기수용영역을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가설 1 즉, '실험 후 두 집단의 자아정체감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 ③ 정서적 안정의 경우 실험 전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설 2의 실험 후 두 집단의 정서적 안정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2) 질적 자료 분석

통계적 검증에 따른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과정 중 정리단계에서 구성원들이 드러내는 내용들을 정리한 회기별로 작성한 보고서 내용과 회기별 활동수행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심리행동영역(흥미와 관심, 참여성, 자신감, 의사소통, 정서적인 면 등)에 초점을 두고 관찰한 상담자 관찰 내용, 집단원 스스로 회기별 수치를 통해 평가한 안정감의 척도(내 마음의 등고선),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마지막 회기에 작성토록 한 사후소감문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본 장에서는 원예요법 프로그램을 적용한 실험집단과 적용하지 않은 비교집단에 대한 결과와 그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대상의 동질성검증

1) 자아정체감

원예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원예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사전 자아정체감이 동일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질성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IV-1>과 같다.

<표 IV-1> 집단 간 사전 자아정체감 비교

		N	M	SD	t	p
안정성	실험집단	8	3.02	.36	-2.949	.010
	비교집단	9	2.57	.27		
목표지향성	실험집단	8	2.89	.53	2.351	.033
	비교집단	9	3.51	.56		
독특성	실험집단	8	2.64	.33	2.196	.044
	비교집단	9	3.06	.43		
대인역할기대	실험집단	8	2.75	.40	2.484	.025
	비교집단	9	3.28	.47		
자기수용	실험집단	8	2.83	.60	2.036	.060
	비교집단	9	3.43	.61		
자기주장	실험집단	8	2.70	.23	3.863	.002
	비교집단	9	3.22	.31		
자기존재의식	실험집단	8	2.39	.37	6.899	.000
	비교집단	9	3.89	.51		
대인관계	실험집단	8	2.92	.18	3.828	.002
	비교집단	9	3.25	.18		
자아개념 전체	실험집단	8	2.76	.22	4.958	.000
	비교집단	9	3.29	.22		

<표IV-1>과 같이 자아정체감의 사전 동질성검사결과는 자기수용을 제외한 전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도 실험집단과 비교 집단 간 $t=4.958$, $p=.000$ 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 동질집단으로 볼 수 없다.

이와 같이 사전검사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자아정체감이 낮은 이유는 실험집단이 검정고시나 자격고시 준비생들을 제외한 지적수준이 낮고(한글터득 못함, 특수학교 출신 등), 가정환경의 열악(양육자가 조모, 편부, 장애인 편모, 무부모 등)하며, 신체적 열세 등 여러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 집단구성에서 오는 결과로 해석된다.

2) 정서적 안정감

원예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원예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사전 정서적 안정감이 동일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동질성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표 IV-2>과 같다.

<표 IV-2> 집단 간 사전 정서적 안정감 비교

		N	M	SD	t	p
정서적 안정감	실험집단	8	3.61	.62	1.702	.109
	비교집단	9	4.08	.53		

<표 IV-2>과 같이 정서적 안정감의 사전 동질성검사결과 $t=1.702$, $p=.109$ 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동질집단으로 볼 수 있다.

2. 가설 검증

1) 가설 1의 검증

가설 1.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정체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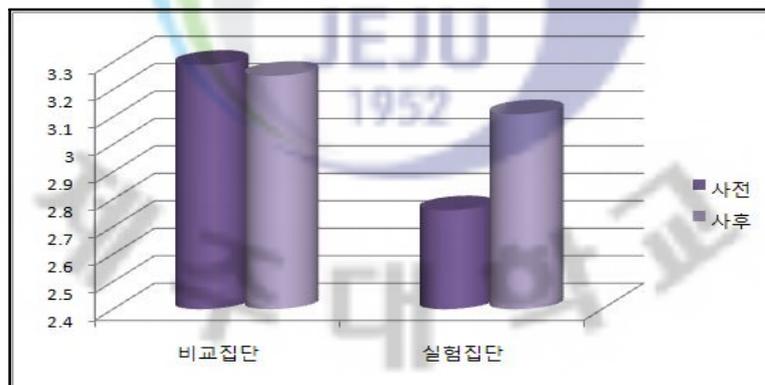
원예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원예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의 자아정체감이 사전과 사후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IV-3>와 같다.

<표 IV-3> 자아정체감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그룹	N	M(사전)	M(사후)	SD
자아정체감 전체	실험집단	8	2.76	3.11	.18
	비교집단	9	3.29	3.25	.24
자원	SS	df	MS	F	p
공변량	.2	1	.195	5.55	.034
사후검사(자아정체감)	.2	1	.196	5.58	.033
사전검사	.03	1	.028	.82	.381
오차	.49	14	.035		
전체	.77	16			

원예요법을 적용한 자아정체감의 사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결과를 공변량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5.55$, $P=.034$).

즉 가설1은 수용되었으며 사전검사 수치를 통제된 상태에서 원예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사후검사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긍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실험집단의 자아정체감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전·사후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1]과 같다.



[그림 IV-1] 자아정체감 사전·사후변화

이와 같은 결과는 압화 원예치료가 자아정체감에 효과가 있었다는 이영애(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실험집단이 원예요법을 통해 자신의 능력, 위치, 역할

등에 대해 탐색하고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인식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원예 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창작행위가 자기표현을 재촉하고, 의사소통을 증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체의 양육과정을 통해 자신감과 책임감 등이 길러져 자기의 존재의미와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자기애를 충족시키고, 자기보존의 확대로 이어져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를 수용하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여 사회적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2) 가설 1-1의 검증

가설 1-1.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정체감안정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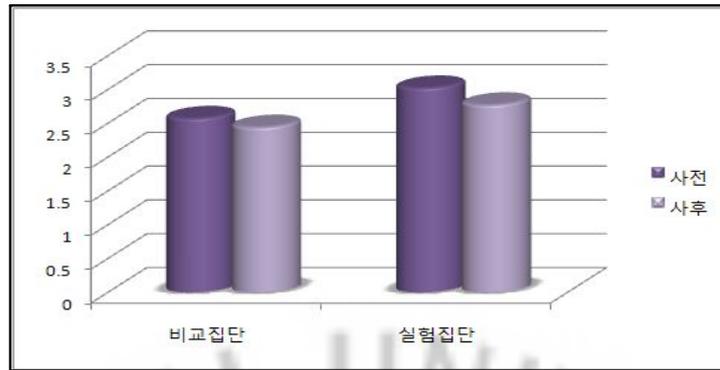
원예 활동 후 자아정체감안정성이 사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공변량 분석 실시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IV-4>와 같다.

<표 IV-4> 안정성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집단	N	M(사전)	M(사후)	SD
안정성	실험집단	8	3.02	2.77	.61
	비교집단	9	2.57	2.44	.35
자원	SS	df	MS	F	p
공변량	.52	1	.516	2.11	.168
사후검사안정성	.16	1	.162	.66	.428
사전검사	.08	1	.079	.33	.577
오차	3.42	14	.244		
전체	4.02	16			

원예요법을 적용한 안정성의 사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의 결과를 공변량 분석 하여 비교검정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2.11$, $P=.168$).

그러므로 가설1-1은 기각되었으며 원예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안정성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안정성에 대해 사전·사후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2]와 같다.



[그림 IV-2] 안정성 사전·사후변화

이와 같은 결과는 원예요법을 통해 과거 자신과 현재 자신간의 일관성과 연속성 있는 자기상을 확립하는데 있어 7주간의 짧은 시간 동안 미래 가능한 자신을 탐색하고 분명한 전망 속에서 자신의 삶을 내다보는 데는 부족한 면이 있다.

단기 원예요법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적용을 통해서는 사계절의 생장을 관찰하고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생명현상의 과정을 쉽게 이해하게 되어 명확한 자기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가설 1-2의 검증

가설 1-2.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정체감 목표지향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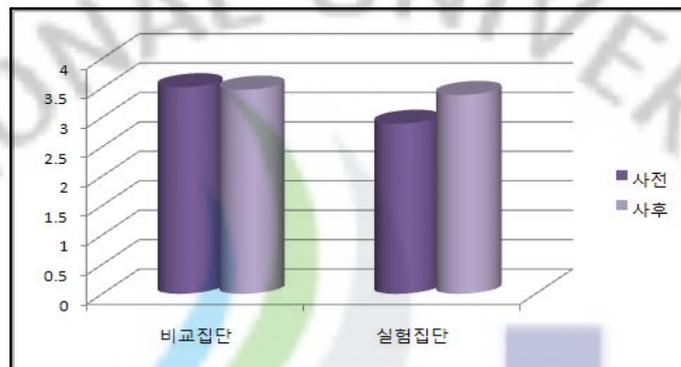
원예활동 후 자아정체감 목표지향성이 사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IV-5>와 같다.

<표 IV-5> 목표지향성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집단	N	M(사전)	M(사후)	SD
목표지향성	실험집단	8	2.89	3.38	.53
	비교집단	9	3.51	3.47	.71
자원	SS	df	MS	F	p
공변량	1.06	1	1.064	3.23	.094
사후검사목표지향성	1.47	1	1.474	4.48	.053
사전검사	.21	1	.210	.64	.437
오차	4.61	14	.329		
전체	6.13	16			

원예요법을 적용한 목표지향성의 사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결과를 공변량 분석하여 비교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3.23$, $P=.094$).

그러므로 가설1-2는 기각되었으며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목표지향성이 유의미하게 변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목표지향성에 대해 사전·사후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3]과 같다.



[그림 IV-3] 목표지향성 사전·사후변화

이와 같은 결과는 원예요법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행동에 대한 갈등을 해결하고, 자신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명확히 하지 못해 목표지향성이 뚜렷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프로그램 적용시기가 늦가을에서 겨울이었고 주로 실내에서 이루어져 식물의 성장과정 등을 관찰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사계절 지속적인 적용을 통해서 식물의 탄생과 성장 결실 등 생명체의 다양한 변화를 체험함으로써 그 과정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자신의 모습을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가설 1-3의 검증

가설 1-3.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정체감 독특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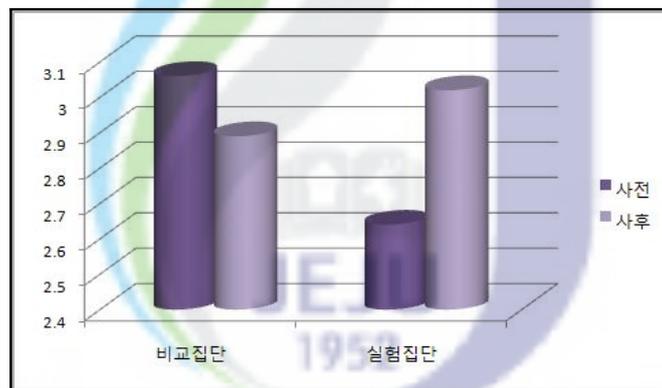
원예 활동 후 자아정체감 독특성이 사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IV-6>와 같다.

<표 IV-6> 독특성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집단	N	M(사전)	M(사후)	SD
독특성	실험집단	8	2.64	3.02	.37
	비교집단	9	3.06	2.89	.38
자원	SS	df	MS	F	p
공변량	1.58	1	1.576	10.8	.005
사후검사독특성	.09	1	.087	.6	.452
사전검사	.14	1	.138	.95	.345
오차	2.03	14	.145		
전체	2.19	16			

원예요법을 적용한 독특성의 사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결과를 공변량 분석하여 비교 검증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10.8, P=.005).

그러므로 가설 1-3은 수용되었으며 원예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독특성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독특성에 대해 사전·사후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4]와 같다.



[그림 IV-4] 독특성 사전·사후변화

이와 같은 결과는 원예요법이 그룹 내의 한 사람에게 그룹 일을 책임지게 하면 지휘자의 정신을 경험하게 되어 자립정신도 키울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청소년기에 독립과 동조라는 두 필요성을 통합해가면서 자신의 독특성을 탐색하게 하며, 눈으로 보고 코로 향기를 맡으면서 호기심을 야기시키고 관찰력이 예민해지면 판단력과 대처 능력이 배양되는데 이런 경험 반복은 창조적 표현을 할 수 있게 하여 자신만의 독특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가설 1-4의 검증

가설 1-4.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정체감 대인역할기대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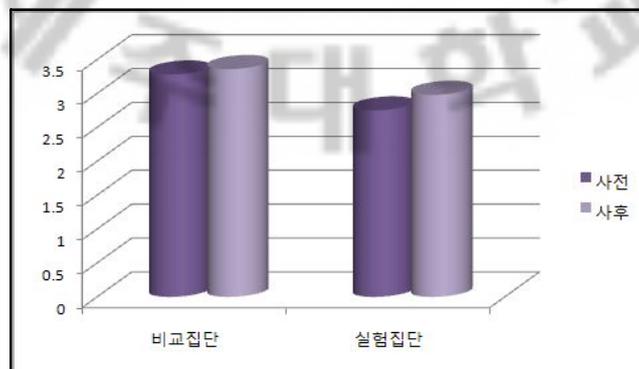
원예 활동 후 자아정체감 대인역할기대가 사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IV-7>와 같다.

<표 IV-7> 대인역할기대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집단	N	M(사전)	M(사후)	SD
대인역할기대	실험집단	8	2.75	2.98	.54
	비교집단	9	3.28	3.36	.43
자원	SS	df	MS	F	p
공변량	1.64	1	1.638	7.05	.019
사후검사 대인역할기대	.24	1	.241	1.04	.326
사전검사	.15	1	.150	.65	.435
오차	3.26	14	.232		
전체	4.1	16			

원예요법을 적용한 대인역할기대의 사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결과를 공변량 분석하여 비교검정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7.05$, $P=.019$).

그러므로 가설1-4는 수용되었으며 원예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대인역할기대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대인역할기대에 대해 사전·사후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5]와 같다.



[그림 IV-5] 대인역할기대 사전·사후변화

이와 같은 결과는 원예요법이 쉽게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여러 명이 함께 시행해야 되는 일도 있다. 그럴 경우 각자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로 존중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며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 이런 경험들이 타인을 배려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하에 자신의 가치를 형성해 감으로써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대인역할지각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6) 가설 1-5의 검증

가설 1-5.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정체감 자기수용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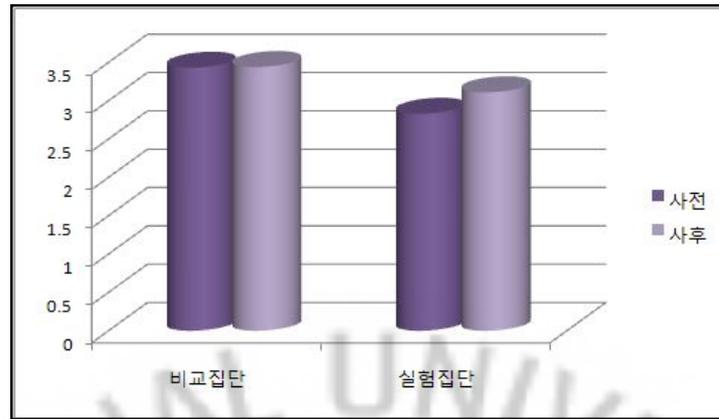
원예 활동 후 자아정체감 자기수용이 사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IV-8>와 같다.

<표 IV-8> 자기수용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집단	N	M(사전)	M(사후)	SD
자기수용	실험집단	8	2.83	3.11	.60
	비교집단	9	3.43	3.44	.34
자원	SS	df	MS	F	p
공변량	5.76	1	5.764	23.2	.000
사후검사 자기수용	.00	1	.000	.00	.954
사전검사	.36	1	.356	1.43	.251
오차	3.49	14	.248		
전체	3.96	16			

원예요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자기수용이 사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결과를 공변량 분석하여 비교검정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23.2, P=.000).

그러므로 가설1-5는 수용되었으며 원예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원예요법 프로그램 적용 전에 비해 자기수용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자기수용에 대해 사전·사후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6]과 같다.



[그림 IV-6] 자기수용 사전·사후변화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자기수용성의 영역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강대근(2005)과 이영애(2007)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즉 원예요법이 자연과 함께 일하면서 환경과 자신에 대해 배우게 되어 자신감을 높여주고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게 하여 자신의 행동과 결과에 대한 자기평가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 오는데 이것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하여 자기수용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7) 가설 1-6의 검증

가설 1-6.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정체감 자기주장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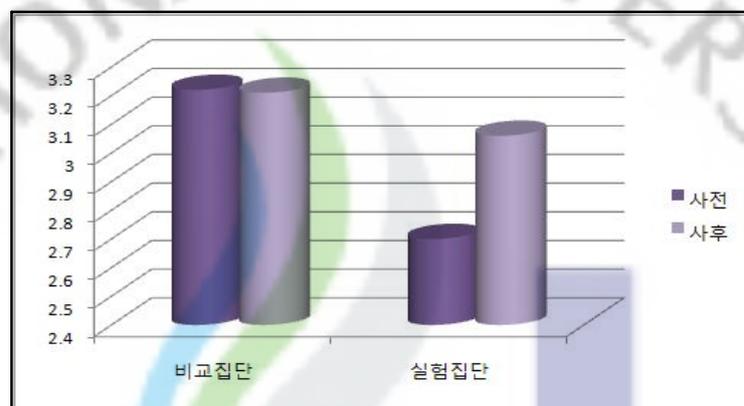
원예 활동 후 자아정체감의 자기주장이 사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IV-9>와 같다.

<표 IV-9> 자기주장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집단	N	M(사전)	M(사후)	SD
자기주장	실험집단	8	2.70	3.06	.31
	비교집단	9	3.22	3.21	.29
자원	SS	df	MS	F	p
공변량	.13	1	.130	2.44	.141
사후검사자기주장	.59	1	.593	11.1	.005
사전검사	.11	1	.110	2.05	.174
오차	.75	14	.053		
전체	1.43	16			

원예요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자기주장이 사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결과를 공변량 분석하여 비교검정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2.44, P=.141$).

그러므로 가설1-6은 기각되었으며 원예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원예요법 적용 전에 비해 자기주장의 변화가 있으나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자기주장에 대해 사전·사후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7]과 같다.



[그림 IV-7] 자기주장 사전·사후변화

이와 같은 결과는 자기주장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훈련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송진희(200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소년원이라는 분위기가 서열화 된 위계질서가 있어 주변의 압력이나 타인의 기대에 구애됨이 없이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솔직하게 표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걸로 해석할 수 있다.

8) 가설 1-7의 검증

가설 1-7.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정체감 자기존재의식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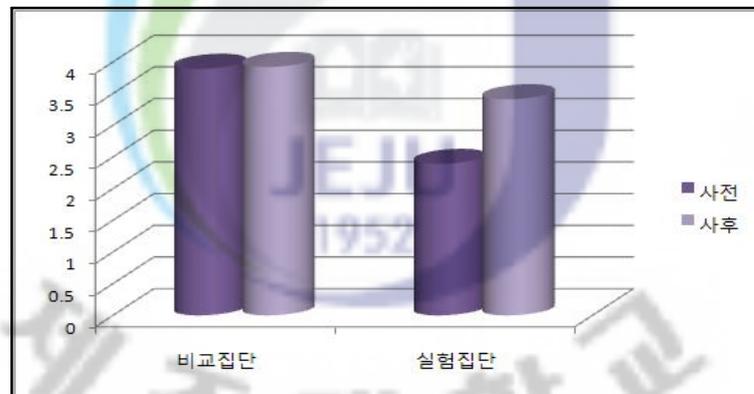
원예 활동 후 자아정체감의 자기존재의식이 사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IV-10>와 같다.

〈표 IV-10〉 자기존재의식에 대한 공변량 분석 결과

	집단	N	M(사전)	M(사후)	SD
자기존재의식	실험집단	8	2.39	3.41	.54
	비교집단	9	3.89	3.92	.56
자원	SS	df	MS	F	p
공변량	2.81	1	2.805	8.83	.010
사후검사자기존재의식	.11	1	.108	.34	.569
사전검사	.05	1	.051	.16	.692
오차	4.45	14	.317		
전체	5.66	16			

원예요법을 적용한 실험집단 자기존재의식의 사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결과를 공변량 분석하여 비교검정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8.83, P=.010$).

그러므로 가설 1-7은 수용되었으며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원예요법 적용 전에 비해 자기존재의식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자기존재의식에 대해 사전·사후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8]과 같다.



[그림 IV-8] 자아존재의식 사전·사후변화

이와 같은 결과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자기존재의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 강대근(2005)과 이영애(200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즉 원예요법이 주변의 생명을 관찰, 양육, 공유 하면서 다른 존재에 대해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도 다른 누군가를 돌볼 수 있다는 자신감과 책임감을 갖게 해 준다. 이것은 자기에 대한 깊고 자세한 경험인 자기존재의식을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다.

9) 가설 1-8의 검증

가설 1-8.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자아정체감 대인관계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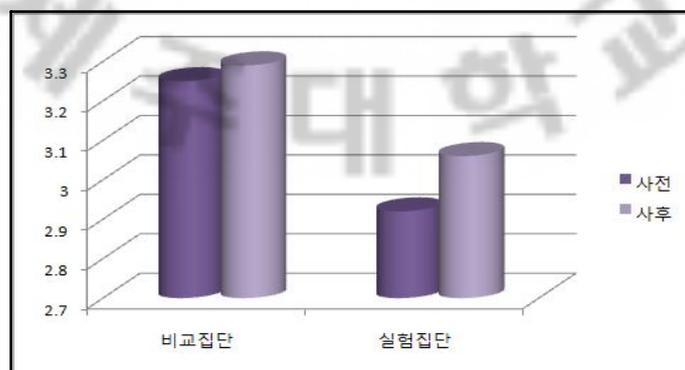
원예 활동 후 자아정체감의 대인관계가 사전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IV-11>와 같다.

<표 IV-11> 대인관계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

	집단	N	M(사전)	M(사후)	SD
대인관계	실험집단	8	2.92	3.06	.56
	비교집단	9	3.25	3.29	.30
자원	SS	df	MS	F	p
공변량	.05	1	.054	.29	.599
사후검사대인관계	.22	1	.219	1.16	.300
사전검사	.00	1	3.444	.00	.989
오차	2.66	14	.189		
전체	3.1	16			

원예요법을 적용한 실험집단의 대인관계의 사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검사결과를 공변량 분석하여 비교검정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29, P=.599).

그러므로 가설1-7은 기각되었으며 원예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원예요법 적용 전에 비해 대인관계가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대인관계에 대해 사전·사후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9]와 같다.



[그림 IV-9] 대인관계 사전·사후변화

이와 같은 결과는 원예 산물을 이용하여 만드는 창작 행위가 자기표현을 재촉하고, 의사소통을 증가하게하며, 자기가 만든 작품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경험도 갖게 되어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사례연구들이 있지만 본 집단에서는 연령과 서열화 된 환경적인 요인을 극복하고 대인관계를 향상시키는데 효과를 가져 오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10) 가설 2의 검증

가설 2.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정서적 안정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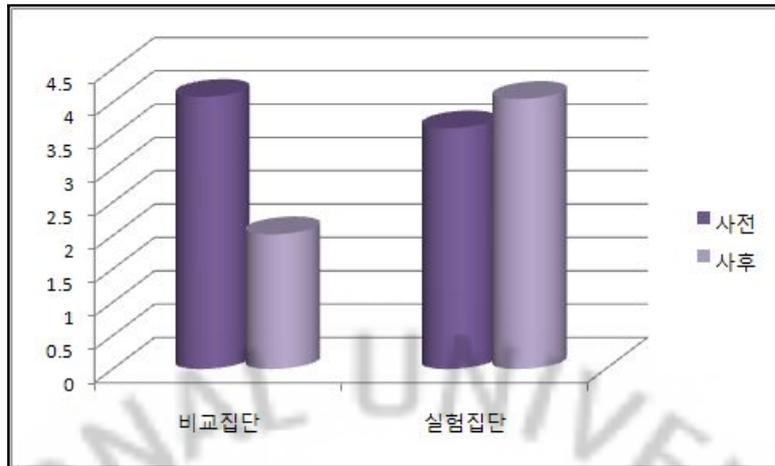
원예활동을 실시한 실험집단과 원예활동을 실시하지 않은 비교집단간의 정서적 안정감을 사전과 사후를 비교하여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t-test를 실시하여 알아본 결과는 <표 IV-12> 와 같다.

<표 IV-12> 정서적 안정감에 대한 분석결과

구 분	N	사전		사후		t	p
		M	SD	M	SD		
정서적 안정감	8	3.61	.62	4.05	.48	-8.96	.000
	9	4.08	.53	2.02	.45		

정서적 안정감의 사전, 사후 비교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 = -8.96$, $P = .000$). 원예요법을 적용한 사후에 실험집단(사전평균=3.61, 사후평균=4.05)은 향상되었으나 비교집단(사전평균=3.25, 사후평균=2.02)은 정서적 안정감이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가설2는 채택되었으며 원예요법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정서적 안정감이 유의미하게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험집단과 비교집단간의 정서적 안정감에 대해 사전·사후변화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IV-10]과 같다.



[그림 IV-10] 정서적 안정감 사전·사후변화

이와 같은 결과는 최용한(2003), 송영란(2003), 신조(2005), 하봉선(2006), 등이 원예활동이 정서적 안정감에 효과가 있음을 밝힌 연구들과 일치한다. 이것은 곧 원예요법이 감성의 순화 및 정서적 안정감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원예활동은 꽃의 줄기를 자른다든지, 정원의 잡초를 뽑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수단을 통해 부정적인 분노나 공격적인 감정을 완화시킴으로써 내부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다룰 수 있어 자아의 완전한 성숙에 많은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메마른 정서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바람직한 인성과 건강한 정신력을 가지고 사회적응력을 향상시킨다.

3. 질적 자료 분석

본 절에서는 통계적 검증에 따른 신뢰성에 대한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활동 과정에 대한 회기별로 작성한 경험보고서의 내용 및 상담자 관찰 내용, 집단 원 스스로 평가한 안정감의 척도(내 마음의 등고선), 사후소감문 등의 내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고 질적 자료의 내용은 <표 IV-13>과 같다.

<표 IV-13> 질적 자료 내용

- 회기별 경험보고서 내용 : 매회기 프로그램 내용에 따른 목표에 준해서 정리 단계에서 과정과 연결시켜 집단원들이 드러내는 내용들을 정리하였다
- 상담자 관찰내용 : 회기별 활동수행 과정에서 집단원들의 심리행동영역 (흥미와 관심, 참여성, 자신감, 의사소통, 정서적인 면 등)에 초점을 두고 관찰 기록하였다.
- 내 마음의 등고선 : 매 회기 집단원들이 내 마음을 알고 이해하며 안정감을 얻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집단원들 스스로 수치를 통해 표시해 보도록 하였다.
- 소감문 내용 :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평가하기 위해 마지막 13회기에 작성토록 하였다.

위의 내용들은 종합하여 가설과 관련지어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설 1. 자아정체감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자아정체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1을 검증하기 위해 사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F=5.55, P=.034$) 가설1은 수용되었다.

회기 프로그램 정리단계에서 크로커스가 ‘예전엔 초라하고 위축됐는데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라고 진술하고 있고, 프로그램 전 과정 마무리에 작성한 소감문에서도 ‘나쁜 버릇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짐으로 인하여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올바르게 바뀌어 나가 나의 자아에 영향을 미쳤던 시간인 것 같다’ 고 했다. 네잎클로버도 소감문에서 ‘처음 시작 때보다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어 너무 좋았고… 사고가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원예활동의 성공적인 경험을 통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원예요법이 소년원생들의 정체감을 확립하기까지 많은 체험을 경험하고 명확한 자기정의를 정리하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표 IV-14> 자아정체감과 관련된 내용

<소감문 크로커스>
나쁜 버릇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짐으로 인하여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올바르게 바뀌어 나가 나의 자아에 영향을 미쳤던 시간인 것 같다.

<소감문 네잎클로버>
처음 시작 때보다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어 너무 좋았고... 사고가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7회기 크로커스 진술>
예전엔 초라하고 위축됐는데 당당하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가설 1-1. 안정성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안정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1-1을 검증하기 위해 사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F=2.11$, $P=.168$) 가설1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가설은 기각되었으나 집단원 중 가장 인지력이 뛰어난 네잎클로버, 알로에 등은 매회기 정리단계에서 정리한 진술문에서는 ‘점점 자라 내가 성장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앞도 보고 뒤도 돌아보는 자신이 되겠다.’ ‘나이가 들면서는 그 나이에 맞게 간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분적인 집단원에게는 원예요법이 식물과 더불어 활동하는 동안 살아있는 식물을 통해 식물의 생활주기와 자신의 삶의 주기를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과거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고 그 결과를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는데 연결지음으로써 그 속에서 일관성과 연속성 있는 자기상이 확립 하는데

도움이 된 듯하나 표본수의 증가와 좀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서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IV-15> 안정성과 관련된 내용

<8회기 네잎클로버 진술>
점점 자라 내가 성장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10회기 알로에 진술>
앞도 보고 뒤도 돌아보는 자신이 되겠다.

<10회기 수선화 진술>
나이가 들면서는 그 나이에 맞게 간다.

가설 1-2. 목표지향성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목표지향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1-2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 사후변화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F=3.23, P=.094$) 가설1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가설은 기각되었으나 매회기 정리 단계에서 ‘한결 성숙해지고 성공한 나를 보여드릴 것이다.’ ‘다음엔 좀 더 집중력을 갖고 제대로 하겠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효도하고 싶다.’ ‘계획과 인내력을 갖고 지내다 보면 꽃을 피울 수 있고 이 꽃이 활짝 피면 내 인생도 꽃 피울 수 있을 것 같다.’ ‘작고 미미하지만 잘 자라 크게 자란 것 못지않게 성장하겠다.’ 등으로 진술하고 있고, 소감문에서도 뚜렷한 목표의식이 생긴 것이다.

‘좋은 모습의 청소년으로 성장 하겠다.’ 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집단원들에게 계획적인 관수를 하고 인내심을 갖고 관리를 해야 하는 원예활동들이 목표지향적인 사고로 전환하는데 부분적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어 표본수의 증가와 좀 더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프로그램 적용을 통해서 유의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표 IV-16> 목표지향성과 관련된 내용

<소감문 알로에>

뚜렷한 목표의식이 생긴 것이다.

<소감문 장미>

좋은 모습의 청소년으로 성장하겠다.

<3회기 개나리 진술>

한결 성숙해지고 성공한 나를 보여드릴 것이다.

<3회기 해바라기 진술>

다음엔 좀 더 집중력을 갖고 제대로 하겠다.

<4회기 네잎클로버 진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싶다, 짜증도 많고 인내심이 없어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다.

<5회기 크로커스 진술>

멋있는 대학캠퍼스와 활발히 생활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싶다.

<7회기 진달래 진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효도하고 싶다.

<8회기 크로커스 진술>

계획과 인내력을 갖고 지내다 보면 꽃을 피울 수 있고 이 꽃이 활짝 피면 내 인생도 꽃 피울 수 있을 것 같다.

<10회기 크로커스 진술>

호텔리어가 되고 싶고...

<10회기 알로에 진술>

작고 미미하지만 잘 자라 크게 자란 것 못지않게 성장하겠다.

가설 1-3. 독특성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독특성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1-3을 검증하기 위해 사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F=10.8, P=.005) 가설1-3은 수용되었다.

활동과정에서 알로에는 리스를 만드는데 자기만의 특이한 감각과 표현력을 갖고 제작하는 걸 관찰할 수 있었고, 매회기 정리단계에서는 ‘아주 독특하다. 생각이 에너지다 라는 표어가 생각난다.’ ‘홀로 피어있어도 어색하지 않게 주변과 어울리는 꽃, 향기 나는 꽃, 야생화로 피어나고 싶다.’ ‘자신에게서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처럼 변화가 있으면서 넓고 깊은 바다 빛깔 같은 향기가 나면 좋겠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자기다운 독특한 방식으로 조정 통합함으로써 자기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고 고양시켜 나가는 자아의 자질(기질)에 원예요법의 창작적인 공예활동이나 허브식물을 이용한 활동들이 생산적인 모습으로 전환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식물을 가까이 함으로써 신체의 오감을 통해 주위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지고 인지적이고 지적인 능력을 키우는데 효과가 있다(손기철 외, 1997)는 이론을 뒷받침한다.

<표 IV-17> 독특성과 관련된 내용

<2회기크로커스 진술>

아주 독특하다 생각이 에너지다 라는 표어가 생각난다.

<3회기 알로에 관찰>

감각과 표현력이 뛰어나도록 제작한다.

<6회기 민들레 진술>

홀로 피어있어도 어색하지 않게 주변과 어울리는 꽃, 향기 나는 꽃,

<6회기 수선화 진술>

야생화로 피어나고 싶다.

<11회기 진달래 진술>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처럼 변화가 있으면서 넓고 깊은 바다빛깔 같은 향기면 좋겠다.

가설 1-4. 대인역할기대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대인역할기대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1-4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F=7.05$, $P=.019$) 가설 1-4는 수용되었다.

원예활동 과정 중 네잎클로버가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은 각자 치우자’ 라고 제안했고 또 집단원 중 가장 연장자이며 힘이 있는 네잎클로버와 알로에가 술선수범하여 정리정돈하고 온갖 곳은 일을 다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개나리가 장미에게 시키던 일을 스스로 하고 다른 구성원들에게 수용적이면서 배려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원예활동을 통해 근면성이나 책임감이 길러져 타인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원예활동은 쉽게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동일한 목적을 향해서 여러 명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도 있어 그 일을 하기 위해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협력해야 하며 책임을 분담하게 한다(손기철외 2002)는 이론을 뒷받침한다.

<표 IV-18> 대인역할기대와 관련된 내용

<6회기 네잎클로버 관찰>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은 각자 치우자.

<7회기 네잎클로버, 알로에 관찰>

제일 말이가 술선수범하여 정리정돈하고 온갖 곳은 일을 다한다.

<7회기 개나리 관찰, 진술>

시키던 일을 스스로 한다, 굉장히 수용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가설 1-5. 자기수용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자기수용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1-5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F=23.2, P=.000$) 가설 1-5는 수용되었다.

매 회기 활동 정리단계에서 작성한 진술문에서 ‘나의 모습은 검정색이었다.’ ‘자신은 지각생이다.’ ‘자신은 크지도 작지도 않고 아주 평범하다.’ ‘나는 체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너무 빈약하다.’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지금 이곳에서의 생활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으며 전체 프로그램 마무리 단계에서 작성한 소감문에서도 통제가 안 되어 공격적이 되곤 하던,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자신의 미진함이나 잘못된 생각, 행동 등을 솔직히 인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원예요법을 통해 식물과 교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기 이해를 통해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데 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표IV-19> 자기수용과 관련된 내용

<2회기 민들레, 크로커스, 개나리 진술>

지금까지 나의 모습은 검정색이다.

<3회기 알로에 진술>

자신은 지각생이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중간정도는 하지 않겠는가,

<3회기 민들레 관찰 >

미진함 등 자신의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7회기 수선화 진술>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지금 이곳에서의 생활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10회기 민들레 진술>

자신은 크지도 작지도 않고, 아주 평범하다.

<10회기 장미진술>

나는 체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너무 빈약하다.

<소감문 알로에>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짜증 많고 언어 폭력도 많았는데 변화가 생겼다.

<소감문 네잎클로버>

통제가 안 되어 공격적이 되곤 하던 감정이 조절되는 듯하며,

가설 1-6. 자기주장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자기주장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1-6을 검증하기 위해 사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 사후변화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아($F=2.44$, $P=.141$) 가설1-6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활동과정 중에 네잎클로버가 ‘튼튼하고 싱싱한 꽃이 보기 좋지 뭐 병든 꽃이나’ 라고 자신의 느낌이나 생각을 표현하는 것과 집단원 중 가장 나이가 어리고 자존감이 결여 되어 처음에는 다른 구성원들과 눈도 마주치지 못하던 장미에게 집단원들의 피드백에 ‘한 번 용기를 내어 나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더니 집단 내에 가장 힘이 있는 네잎클로버에게 금방 지시적인 피드백을 보내는 모습, 부정적인 피드백까지 자유롭게 오가며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모습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초기에는 경직되고, 산만하며 다른 구성원들의 눈치도 보고, 자기를 드러내는

데 주저하던 모습들이 점차 신뢰감이 형성되면서 자유로운 피드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이나 문제를 솔직히 드러내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모습들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분명히 의식하고,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분명히 나타낼 수 있는 태도가 나아지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어 집단의 표본수가 증가하고 장기적인 원예요법의 적용을 통해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표 IV-20> 자기주장과 관련된 내용

<6회기 네잎클로버 관찰>
 튼튼하고 싱싱한 꽃이 보기 좋지 뭐 병든 꽃이냐 라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

<11회기 관찰>
 집단원들의 피드백에 장미에게 나를 당당히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한번 용기를 내어 드러내 보라고 했더니 금방 네잎클로버에게 지시적인 피드백을 보냈다. 부정적인 피드백까지 자유롭게 오가며 자신들이 무엇 때문에 이곳에 있는지 개인적인 문제를 자연스럽게 드러냈다.

가설 1-7. 자기존재의식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자기존재의식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1-7을 검증하기 위해 사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F=8.83, P=.010) 가설1-7은 수용되었다.

회기중에 크로커스와 해바라기가 ‘오늘 작업은 생명감을 느낀다.’ ‘꽃들을 내가 돌봐 주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 고 한 것과 ‘굴하지 않고 오뎅이처럼 늘 일어설 것이다.’ 라고 진술한 것, 소감문에서 ‘식물을 직접 키우면서 내가 잘 보살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뿌듯하고 점점 더 잘 컸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보게 되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라고 표현한 내용은 원예요법을 통해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뤄봄으로써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고 식물의 양육과정이 자신감과 책임감을 심어주어 자신의 존재가치를 터득해 나가는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IV-21> 자기존재의식과 관련된 내용

<8회기 크로커스 진술>

오늘 작업은 생명감을 느낀다, 꽃들을 내가 돌봐 주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

<10회기 해바라기 진술>

굴하지 않고 오뎅이처럼 늘 일어 설 것이다.

<소감문 개나리>

식물을 직접 키우면서 내가 잘 보살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부듯하고 점점 더 잘 컸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보게 되었다.

<소감문 해바라기>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가설 1-8. 대인관계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대인관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1-8을 검증하기 위해 사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 분석한 결과 사후변화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아($F=.29, P=.599$) 가설1-8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회기별 정리단계에서 네잎클로버와 해바라기가 진술한 ‘집단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자신에게 잘 다가오고 잘 대해 줄 것 같다’ 고 한 것과 수선화, 장미, 알로에가 소감문에서 ‘동료들과 흙을 만지고 꽃향기를 맡으면서 더욱 친해진 것 같다.’ ‘어려웠던 동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남에게 배려 할 줄도 알고 주변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다’ 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통계적인 효과를 보지는 못했지만 원예요법이 이 영역에 부분적으로 미미한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IV-22> 대인관계와 관련된 내용

<1회기 네잎클로버 진술>

집단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7회기 해바라기 진술>

자신에게 잘 다가오고 잘 대해 줄 것 같다.

<소감문 수선화>

동료들과 흙을 만지고 꽃향기를 맡으면서 더욱 친해진 것 같다.

<소감문 장미>

어려웠던 동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소감문 알로에>

남에게 배려 할 줄도 알고 주변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다.

가설 2. 정서적 안정감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의 정서적 안정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 2를 검증하기 위해 사후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여 알아본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t=-8.96$, $P=.000$) 가설2는 수용되었다.

틱장애가 있어 잠시도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늘 안절부절 못하는 장미를 보고 그곳 선생님께서 어느날 같이 마무리 시간에 잠시 동행하게 되었을 때 ‘늘 저렇게 끝까지 가만히 앉아 작업하느냐’ 고 놀라워 하였고, 네잎클로버가 ‘예전에는 방에 들어갈 때 떨렸는데 수행한 작품들이 있어서 요즘은 방안이 포근한 느낌이 든다’ 고 했으며, 크로커스가 소감문에서 ‘회기를 거듭할수록 차분한 마음이 생긴 것 같아 좋았다.’ ‘내 자신이 건강해 지는 것 같아 마음의 쉼터처럼 여겨졌다.’ 라고 진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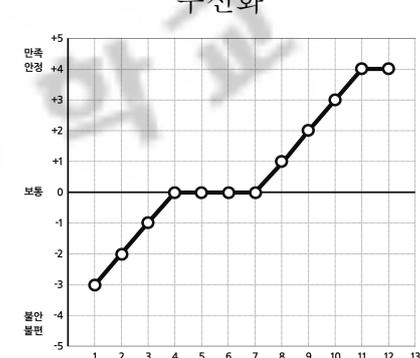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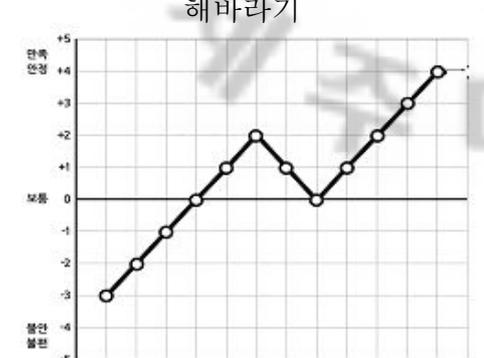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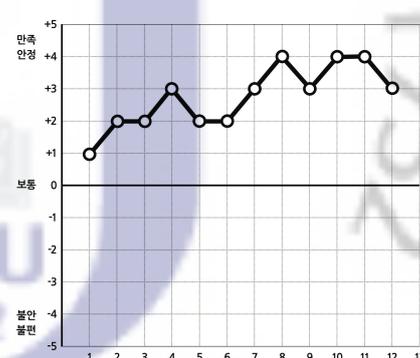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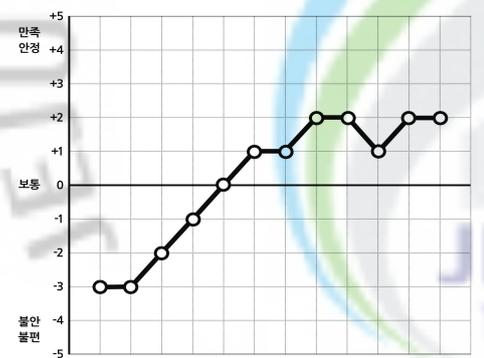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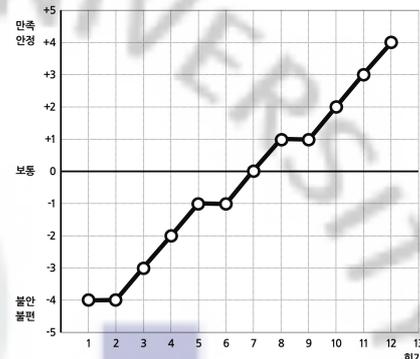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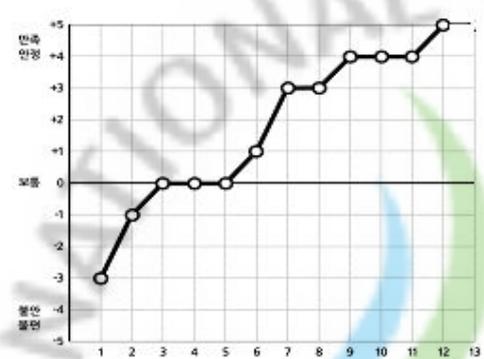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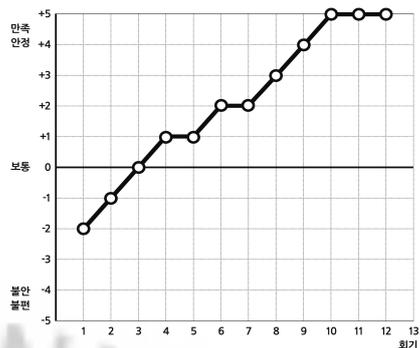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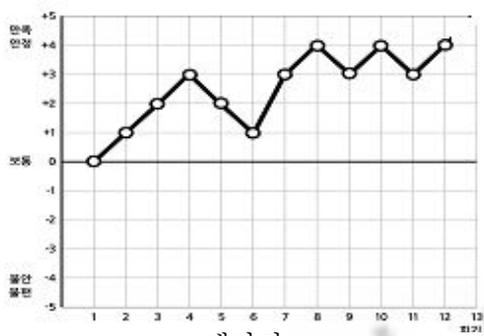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원예활동 과정이 쉼터처럼 여겨질 만큼 편안하고 또한 원예활동을 통해 자연에 동화되어 순화되어가는 모습을 알 수 있다. 손기철 등(2006)이 식물의 녹색은 심리적 안정과 유연성을 주고, 부정적인 분노와 공격적인 감정

을 완화시킴으로써 자신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애정과 증오의 갈등을 다루는 적절한 방법과 기술을 더욱 증진시킨다고 보고한 내용과 원예활동 과정의 매력은 타 활동에서 찾아보기 힘든 안정감과 평화감을 줄 수 있고, 원예로부터 얻는 가장 큰 만족을 “변화를 통한 안정성” 이라고 언급한 Matuso와 Miyajima(1998)의 이론과 일치하며 원예요법이 소년원생들에게 효과가 있음을 입증한다.

<표 IV-23> 정서적 안정감과 관련된 내용

<3회기 관찰>
 늘 저렇게 끝까지 가만히 앉아 작업하느냐,
 <5회기 네잎클로버 진술>
 예전에는 방에 들어 갈 때 썰렁했는데 수행한 작품들이 있어서 요즘은 포근한 느낌이 든다,
 <7회기 네잎클로버 진술>
 빨간 꽃이 풍성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소감문 크로커스>
 회기를 거듭할수록 차분한 마음이 생긴 것 같아 좋았다, 내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 마음의 쉼터처럼 여겨졌다.

또한 매 회기 구성원들이 활동을 통해 안정감을 얻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수치를 통해 표시해 보도록 하였는데 1회기 시작 할 때는 대부분 정서적으로 불안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간에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개인 관심과 흥미도에 따라 혹은 스스로 수행능력이 미진하거나 성취감 및 집중력, 만족감이 결여 되는 경우 등고선 곡선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회기를 거듭 할수록 점차 자신에 대한 이해나 안정감이 향상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회기별 집단원 스스로 평가한 안정감의 척도인 내 마음의 등고선은 [그림 IV-11]과 같다.



[그림 IV-11] 내 마음의 등고선

- * 개나리 : 6회기 종이꽃 만들기에서 어려워하며 집중하지 못하고 9회기에도 산만한 모습이었으며 11회기에서도 자신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소감문에서는 목표 지향적이면서 자기수용이나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고 있어 그런 모습이 등고선에서 잘 보여 주고 있다.
- * 네잎클로버 : 처음 시작할 때는 자신의 욕구를 조절하지 못하여 충동적이고 공격적이다 라고 진술하고 그런 부분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회기를 거듭할수록 집단원 중 가장 흥미를 갖고 집중력 있게 참여했고, 소감문에서도 사고가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 것 같아 좋았다고 표현하고 있다. 등고선에서도 과정을 통해 정서적 안정감을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크로커스 : 집단원 중 길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모습과는 다르게 원예활동이 재미있고 흥미로우나... 하면서 3회기에서 직면을 거부하며 자기노출을 하지 않았던 모습이 등고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소감문에서도 진술했듯이 원예요법 프로그램을 통해서 가장 정서적 안정감을 찾은 구성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
- * 민들레 : 회기별 진술에서도 지금까지의 자신은 검정색이었다고 표현했듯이 처음에는 집단원 중 가장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않았다고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회기를 거듭할수록 집중력을 갖고 활동적으로 참여했고 그 결과 점차 만족감이나 안정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해바라기 : 7회기에서 외로운 모습을 읽을 수 있었고 10회기 진술에서도 아주 자존감이 떨어진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 집중력을 갖고 몰입하던 태도가 후반부에 가서 약간 산만했던 모습이 등고선을 통해서도 읽을 수 있으나 점차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 수선화 : 처음 시작 할 때 정서적 안정감 수치가 가장 높았던 집단원이다. 자존감이 강한 모습은 10회기 진술에서도 알 수 있고, 9회기에서 약간 산만했던 모습을 보인 것과 12회기 진술을 하지 않았던 모습이 등고선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 * 알로에 : 7회기 회기별 내용에서 별다른 진술이 없었고, 10회기에서는 목표지향적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보였다, 처음에 비해 안정감을 찾은 모습을 소감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으며 등고선이 이를 잘 증명해주고 있다.
- * 장미 : 집단원 중 가장 인지력이나 자존감이 떨어진 구성원이다. 5회기 잡곡액자 만들기과 6회기 종이꽃 만들기에서 진행자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이 부분에서 자기성취감이나 자신감을 갖지 못해 만족감이나 안정감이 정지되는 모습이 등고선에서 나타난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음을 보여준다.

위와 같은 분석결과는 원예요법이 소년원생들의 사고나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정서적 안정에 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회기를 거듭할수록 점차 식물과 자연에 대한 흥미를 갖고 참여하며 재배 방법이나 원예결과물 제작 방법에 대해서도 스스로 탐구하고 창의력을 발휘하는 모습들을 보였고, 살아있는 생명체를 다뤄봄으로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어 근면성이나 책임감 및 자신감이 길러져 현실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되어 가는 것도 알 수 있다. 또한 식물과 교감하면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자기이해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하는데 효과가 있어 지금까지의 생활을 반성하고 미래의 삶에 대해 자세를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는 곧 정체감을 확립하기까지 많은 체험을 하는 과정을 통해 명확한 자기정의를 정리하는 과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고 심신의 건강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데도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V. 요약,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원예요법이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정서적 안정감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 정리하고 연구결과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그리고 연구결론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제시한다.

1. 요약

본 연구에서는 원예요법은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감과 정서적 안정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연구문제 1. 원예요법은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원예요법은 소년원생들의 정서적 안정감에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

위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자아정체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1.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안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2.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목표지향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3.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독특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4.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대인역할기대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5.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자기수용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6.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자기주장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7.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자기존재의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1-8.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는 자아정체감의 하위 영역인 대인관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원예요법에 참여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간에 정서적 안정감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본 연구대상은 제주시에 소재한 소년원생 17명이며 이들을 무선표집하여 실험집단 8명과 비교집단 9명으로 구분하였다.

이 연구의 과정은 실험집단·비교집단의 구성, 사전검사, 실험집단의 원예요법 적용실시, 사후검사, 통계처리 및 자료 분석의 순으로 진행하였다.

원예요법 프로그램은 연구자가 직접 실시하였고, 주 2회(월, 수요일) 90분~120분씩 총13회기 실시하였다.

프로그램이 실시를 끝낸 후 사전검사에 실시했던 동일한 검사 도구로 실험집단과 비교집단 모두에게 사후검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원예요법 프로그램은 전문적 원예치료의 실제와 전문적 원예치료를 위한 평가도구 및 프로그램(손기철, 2006)을 바탕으로 연구자가 연구 과정에 맞도록 재구성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아정체감검사는 1975년에 서봉연이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에서 개발하였으며, 성순옥(2001)이 사용한 자아정체감의

척도로 안정성(8), 목표지향성(8), 독특성(8), 대인역할기대(8), 자기수용(8), 자기주장(8), 자기존재의식(8), 대인관계(8)의 8개 영역 총 64개 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이 중 35문항은 역 문항이다. 정서안정검사는 미국의 CFSE(Culture-Free Self-Esteem Inventory)와 독일의 FSKN 검사(Die Frankfurter Selbstkonzeptskalen)를 토대로 한국 실정에 맞게 김정규(2000)가 새롭게 문항을 작성한 성신자기개념검사 내용의 5개의 하부영역 중 청소년들의 정서적 문제를 진단하는 내용에 해당하는 총 29개 문항으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 분석은 SPSS 14.0으로 이루어졌으며 통계적 유의미 수준은 .05로 설정하였다. 실험 전 실험집단과 비교집단의 동질성을 분석하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집단은 자아정체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실험 후 두 집단의 자아정체감은 공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정서적 안정의 경우 실험 전 두 집단은 통계적으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실험 후 가설 2의 차이를 밝히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양적 연구의 신뢰성이 갖는 제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회기별 경험보고서의 내용 및 상담자관찰내용, 내 마음의 등고선, 사후 소감문 등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실험 연구를 통해 얻어진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예요법에 참여한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감은 실험집단은 사전에 비해 사후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F=5.55, P=.034$) 나타났으나 비교집단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원예요법에 참여한 소년원생들은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 중 독특성($F=10.8, P=.005$), 대인역할기대($F=7.05, P=.019$), 자기수용($F=23.2, P=.000$), 자기존재의식($F=8.83, P=.010$)의 영역에서 사전에 비해 사후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원예요법에 참여하지 않은 비교집단은 사후에 정체되거나 감소되는 현상을 보였다.

셋째, 원예요법에 참여한 소년원생들의 정서적 안정감은 실험집단은 사전에 비해 사후 유의미하게 향상된 것으로 ($t=-8.96$, $P=.000$) 나타났으나 비교집단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 결론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결론을 내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예요법은 소년원생들의 자아정체감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킨다. 이는 원예요법이 자립성과 책임감, 인내력을 기르게 하고 생명현상 과정의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다운 독특한 방식으로 조직, 통합한다. 그리고 원예활동은 소년원생으로 하여금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인식함으로써 다른 존재를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 자신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와 목적을 찾아 진정한 자기를 이해하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원예요법은 자아정체감의 하위영역인 독특성, 대인역할기대, 자기수용, 자기존재의식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킨다. 원예요법은 자신의 고유성과 독자성을 이해하게 하고 자신과 다른 사람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하게 하여 자신의 존재가치를 형성해 감으로써 서로를 수용, 인정하게 되고 자신감을 높여 긍정적인 사고를 기르게 됨으로써 자신에 대한 평가의 만족도가 높아지는 효과를 가져 온다고 볼 수 있다.

셋째, 원예요법은 소년원생들의 정서적 안정감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킨다. 원예요법은 자신감과 성취감을 높여 부정적 분노나 공격적 감정, 불안이나 긴장감을 완화시킴으로써 정서적 안정감을 긍정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하면 원예요법은 청소년시기 발달과업 수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자아정체감 8개의 하위영역에 적용함으로써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역할실험을 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곧 원예활동을 통한 자연과의 교감이 자아형성에 영향을 미쳐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다양한 욕구가 승화되어 집중력, 문제해결능력, 자기통제력 같은 실생활에 필요한 의식과 생활을 통합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과거 자신의 경험을 반추하게 하여 갈등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통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현재의 자신을 이해하는데 연결지음으로써 그 속에서 일관성과 연속성 있는 자기상을 확립하고 자신의 독특성을 인정하게 되며 자신감과 성취감 및 책임감을 높여주어 목표의식을 갖게 한다. 또한 자신과 타인과의 관계와 역할 하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존재가치를 일깨워 자기에 대한 긍정적 자아상을 확립하게 함으로써 심리적 부적응 문제를 감소시켜 정서적 안정감을 찾는 데 효과적임을 입증해 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수가 적어서 일반화시키기에 어려움이 있고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상자 선정 및 환경 등을 통제하지 못한 점이 있지만 순간적인 충동과 욕구를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충동적이고 우발적인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원생들에게 원예는 실생활에서도 필요하고 적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정규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해 준다.

3. 제 언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을 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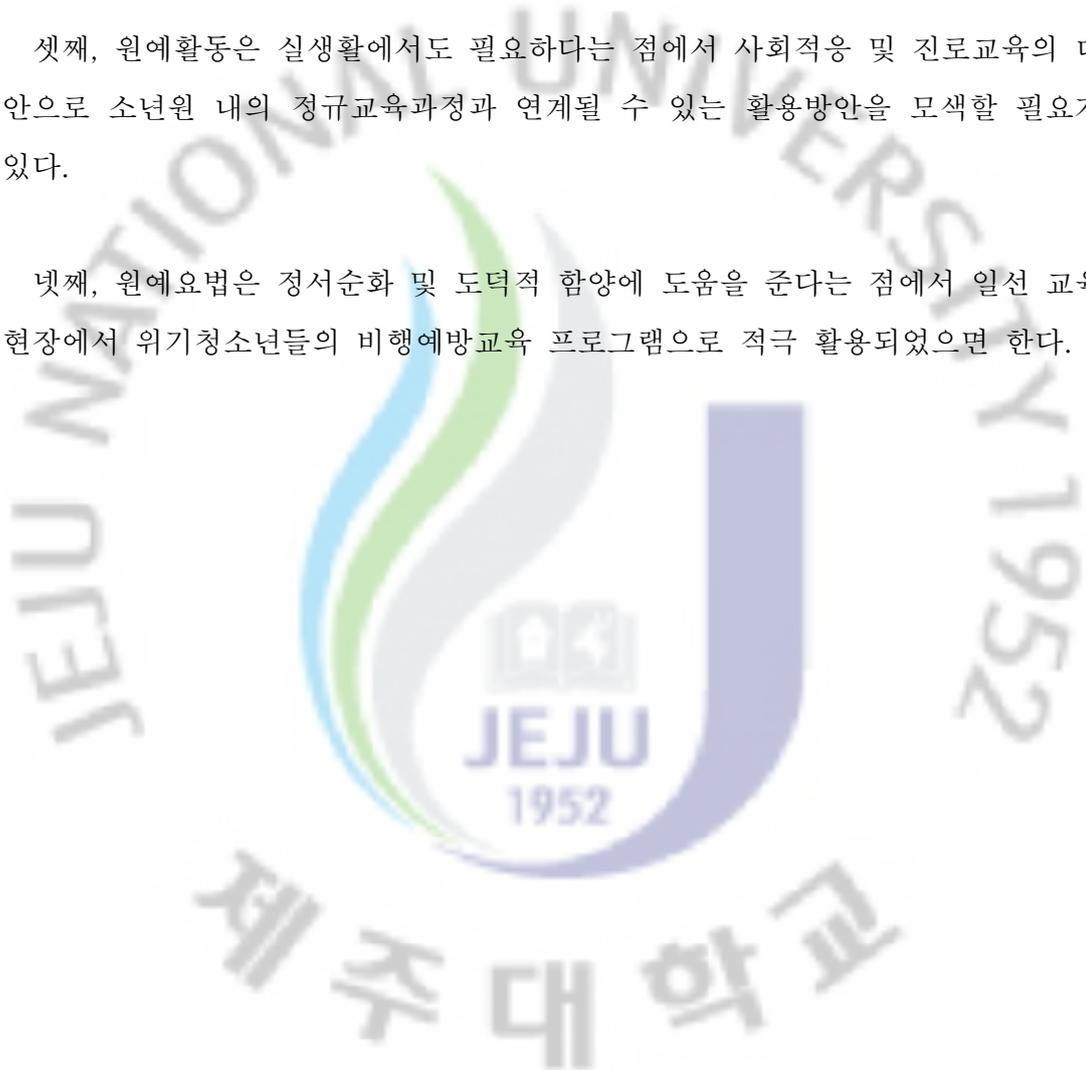
첫째, 원예치료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입증되었고 본 연구에서도 그 효과가 검증되어 소년원생들의 부적응 행동 및 심리치료에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소년원이라는 통제된 환경 속에 적합한 치료중재모델이나 기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 및 기관의 특성상 집단원을 모집·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보다 역동적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선 지속적인 적용을 통한 단일집단 반복실험 설계를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원예활동은 실생활에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회적응 및 진로교육의 대안으로 소년원 내의 정규교육과정과 연계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원예요법은 정서순화 및 도덕적 함양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일선 교육 현장에서 위기청소년들의 비행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 적극 활용되었으면 한다.



참고문헌

- 강대근(2005). **원예치료가 실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정체감형성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창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상은(2003). **원예치료가 아동의 게임중독과 공격성 완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 카톨릭대학교 대학원.
- 강진영(2006). 학교상담의 진단과 대안. **전문상담순회교사 연수자료(23)**. 교육인적자원부.
- 강혜자(1998). **원예치료가 아동의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강혜영(2004). **원예활동 프로그램이 아동의 공격성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구본용(1992). 비행청소년 지도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대학생활연구**, 10.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 (2006).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출범식 세미나 자료집(27-29).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김영옥(2001). **원예치료가 청소년의 정신건강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 농축대학원.
- 김은아(2003).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비인기아의 자아개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정규(2000). **성신자기개념검사**. 한국 가이드스(<http://www.guidance.co.kr>).
- 김주자(1999). **현대의 무용교육**. 현대미학사.
- 김준호·노성호·이성식·곽대경·이동원·박철현(2003). **청소년비행론**. 서울 : 청목출판사.
- 김한석(2001).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아동의 부적응행동특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나경미(2006). **원예치료수업이 대안학교 학생의 상태특성불안감소와 자아존중**

- 감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 남선미(2003).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원예치료 적용**. 석사학위논문,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 문화체육부(1993). **청소년백서**. 431면.
- 박선미(2006). **음악활동이 청소년의 정서안정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박점용(2001). **자기주장훈련이 공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정순(2002). **사육·재배 현장체험을 통한 자기성취감 및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서정근·이종석·곽병화·곽혜란·이애경(2000). **식물과 인간이 함께하는 원예치료학**. 단국대학교 출판부.
- 성순옥(2001). **심성계발 프로그램이 여고생의 자아정체감 형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 손기철(2004). **실내식물이 사람을 살린다**. 서울 : 중앙생활사.
- 손기철·김수연·이손선·송중은·조문경(2006). **전문적 원예치료를 위한 평가 도구 및 프로그램**. 서울 : 쿠북.
- (2007). **전문적 원예치료의 실제**. 서울 : 쿠북.
- 손기철·박석근·부희옥·배공영·백기엽·이상훈·허복구(1997). **원예치료**. 서울 : 도서출판 서원.
- 손기철·소인섭·송창길 역(2007). 豊田正博(1998). はじめてみよう園芸療法. 서울 : 쿠북.
- 송명자(1995). **발달심리학**. 서울 : 학지사.
- 송명호·김유정·이화련(2008). 비행청소년의 구조적 결손가정 유무와 비행행동에 따른 성격특성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론집 Vol.8(570-574)**. 법무부 보호국.
- 송영란(2003). **원예치료가 시설 아동들의 행동발달 및 정서함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송진희(2004). Gestalt를 적용한 원예치료가 실업계 정인지체고등학생의 자기인식과 자기주장 및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신 조(2005). 방과 후 원예치료 프로그램이 맞벌이 가정 아동의 심리적 안정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 심우경·김응일·송태갑(1997). 원예요법, 서울 : 도서출판 서일.
- 육미라(2003). 원예치료가 결손가정 아동과 정상가정 아동의 자아 존중감 및 사회성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농축대학원.
- 윤순구(2001). 재배활동이 아동들의 인성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명철(2003). 자연음악을 도입한 원예치료가 고등학생의 우울증상 증후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 이무웅(1992). 보호관찰 제도론. 서울 : 풍남출판사.
- 이민정(2006). 원예치료가 빈곤결손가정아동의 자아개념과 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병대(2002). 농업계고등학교 학생들의 자아정체감 유형과 근로의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수정(2004). 경찰단계에서의 선도 조건부 소년 다이버전. 경찰청.
- 이영애(2007). 의미요법을 도입한 압화 원예치료가 중년여성의 삶의 목적과 자아정체감 증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농축대학원.
- 이은미(2002). 집단상담이 초등학생의 인성변화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이주오·양봉환·고재우(2006). 소년보호 교육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변화전략에 관한 연구. 소년보호론집 Vol.7(345-346). 법무부 보호국.
- 임영모(2008). 마음을 열고 스트레스를 풀면 성공과 행복이 다가 온다. 출판사 서평.
- 임영식·한상철(2006). 청소년 심리의 이해. 학문사.
- 정경자(2004). 성가치명료화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승이(2004). 원예치료가 고등학교 정인지체 학생의 대인관계 향상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 주은연(2004). **원예치료가 학습부진아의 행동특성 및 정서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최근철(2002).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아동의 원예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강남대학교 대학원.
- 최영애(1999). **아동을 위한 원예치료개발과 효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최영애(2003). **원예치료**. 서울: 학지사.
- 최용환(2003). **원예활동이 중학생의 불안 감소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신라대 교육대학원.
- 하봉선(2006). **원예요법이 중학교 학습부진아의 적응행동 및 정서적 안정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국 원예치료 협회 <http://www.khta.or.kr>.
- 한국화훼장식교수연합회(2004). **600가지 꽃도감**. 부민문화사.
- 한라식물사랑회(2007). **한라식물**. 특집 제4호,
- 허혜경, 김혜수(2003). **청년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 Abrahamsen, D.(1944). *Crime and the human mind*. New York : Columbia University Press.
- Andrew, F. M. & Withey, S. B.(1976).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 American's perception of life quality*. N. Y : Plenum Press.
- Broson, G. W.(1959). Identity diffision in late adolescents. *Journal of Abnolmal and social psychology*, 59-417.
- Carlson, B.(1984). Children's observations of interpersonal violence. In Roberts A(Ed.): *Battered Women and Their Families*. New York, Springer.
- Davis, S. H.(1995). American Horticultural Therapy Association : Its Purpose and Potential, *HortTechnology*. 5(2) : 121-126.
- Erikson, E. H.(1960). *The problem of ego indentity, indentity & anxiety*. In M.R. stein(Ed.), New York: The free press.
- (1968). *In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 W.W. Norton co.

- (1974). *Dimensions of Anew identity*, the 1974 Jefferson Lectures in the Humanities, N.Y : norton.
- (1980). *Identity and the life cycle*. New York : W.W. Norton co.
- Getz, D. A, Karow & Kielbaso, J. J.(1982). *Inner city preferences for trees and urban forestry programs*. Tech. Arboriculture.
- Hall, G. S.(1973). *Values Clarification as Learning Process : A Guidebook of Learning Strategies*. New York : Paulist Press
- Kaplan, S.(1973). *Cognitive maps in perception and thought. Image and environment*, Chicago.
- Kohlberg, L.(1973). *The claim to moral adequacy of a highest stage of moral judgment*. New York : The Journal of philosophy.
- Lewis, C. A.(1975). Nature City; Translating the Natural Environment into Urban Language. *The Morton Arboretum Quarterly* 11(2) : 17–21.
- Marcia, J. E.(1980). *Identity in Adolescent Psychology*. Newyork : John Wiley.
- Maslow, R. W.(1965). *Motivation and Personality (2nd Ed)*. New York : Harper Row.
- Matsuo, E. & Miyajima, I.(1998). Up-to-date Trend of Horticultural Therapy in Japan. *Korean Society for plants, People and Environment* 1:22–33.
- Relf, P. D.(1981). *Dynamics of Horticultural Therapy*. Rehab. Lit. 42(5–6) : 147–150.
- (1992). *Hort Technology*. 2(2 : 159–171.
- (1998). *The Role of Horticulture in Human Well-being and Quality of Life*. *Korean Society for Plants. People and Environment* 1 : 12–21.
- Rogers, C. P.(1974). *On becoming a person*. Boston : Houghton Mifflin.
- Ulrich. R. S.(1984). View Through a Window May Influence Recovery from Surgery. *Science* 224, 420–421.

<Abstract>

The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on Reformatory Students' Formation of Ego-identity and Emotional Stability

Han, Young- Sook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Tae-Soo

The purpose of this study²⁾ was to examine whether there is enhancing effect of horticultural therapy on reformatory students' ego-identity and emotional sense of stability. To check up the effect, the research questions were set as below:

1. Which effect horticultural therapy has on reformatory students' ego-identity?
2. Which effect horticultural therapy has on reformatory students' emotional sense of stability?

To solve research questions mentioned above, research progress with following order : selecting research objects, a preliminary inspection, organizing experiment group and comparison group, applying horticultural therapy to experiment group, post examination, statistic processing, and analyzing data.

Reformatory students in Jeju city are volunteers for research and the number of volunteers is 17 totally. Among 17 students, 8 students are for experiment group, and 9 students are for comparison group.

2) This thesis submitted to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9.

Ego-identity examination was made by Bong-Yon Seo in 1975. And also, it is organized with total 64 questions which have 8 sub-question groups as ego-identity index that Soon-ok Sung(2001) used. Ego-identity examination is based on USA CFSE(Cultural-Free Self-Esteem Inventory) and Germany FSKN examination(Die Frankfurter Selbstkonzeptskalen), and is organized with total 29 questions that have 5 sub-question groups as self-esteem inventory that Jung Kew Kim made(2000).

Horticultural therapy program for this research was reconstructed for suitable research process, based on professional horticultural therapy fact, evaluating means for professional horticultural therapy, and program (Gi-Chul Son, 2006). Horticultural program for this research is taken effect by self-research twice a week (Monday, Wednesday). It took 90 minutes to 120 minutes. It is 13 times totally.

In this research, data is analyzed by SPSS 14.0, and .05 is statistic significance level. To analyze homogeneity between experiment group and comparison group before experimentation, t-test was carried out. In consequence, both groups have meaningful difference statistically, except proprioceptive part within ego-identity. Therefore, to analyze hypothesis 1 after experimentation, we carried out analysis of covariance. In case of emotional sense of stability, because both group have no statistical difference before experimentation, we carried out t-test to clarify hypothesis 2.

To make up authenticity from statistical verification, we analyzed report contents and counselor's survey contents about activity process each date of return, measure of stability the contour of my mind which was evaluated by each volunteer, and each post-impres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obtained through this process are as follow:

First, ego-identity of reformator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horticultural therapy improved meaningfully. And also, compared with pre-experimentation, sub-factors of ego-identity such as uniqueness, interpersonal role expectation, self-acceptance, and personal role cognition improv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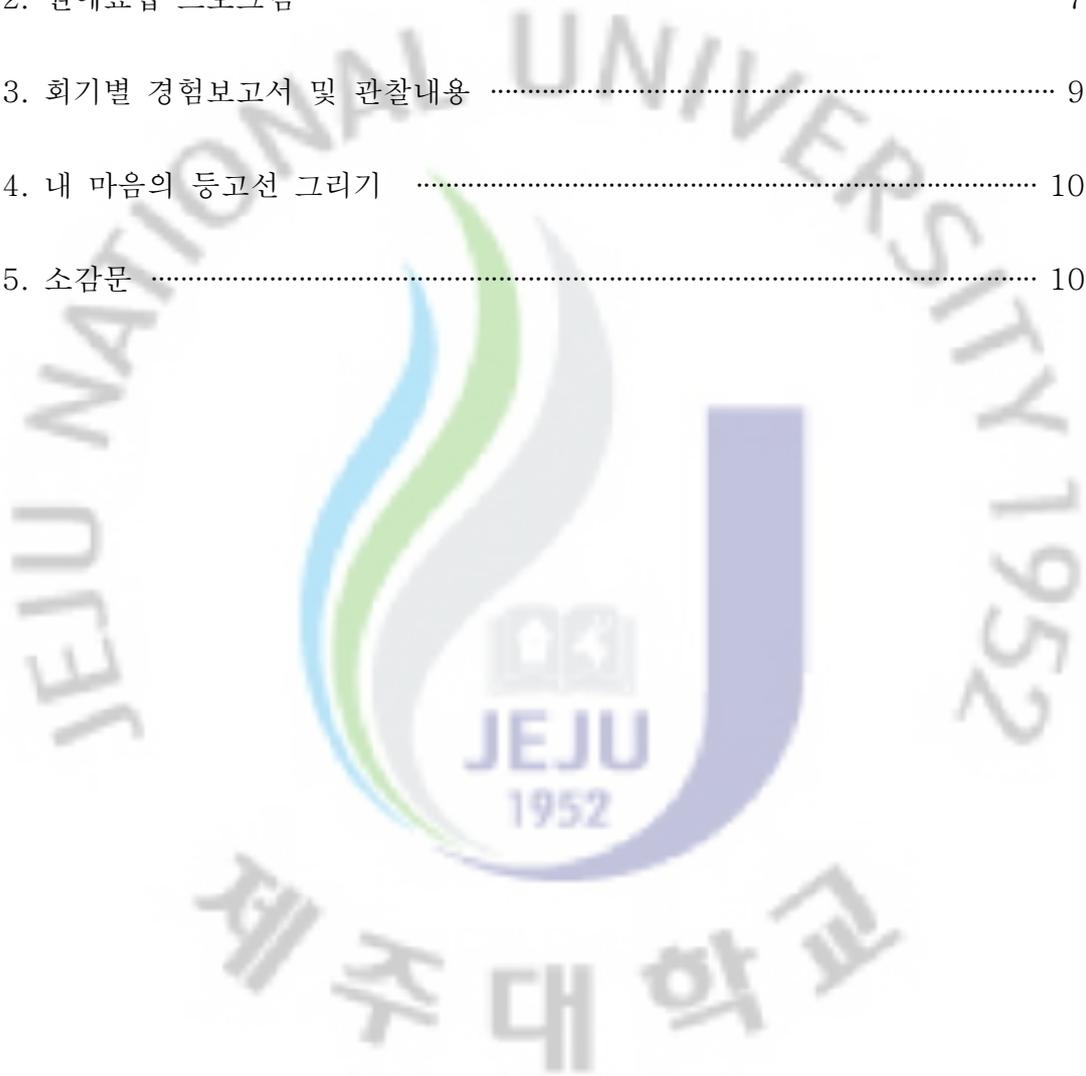
Second, emotional sense of stability of reformatory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horticultural therapy improved meaningfully.

In conclusion, we can get to know the fact that horticultural therapy have effects on various role experiments to solve crisis with applying to 8 sub-factors of ego-identity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adolescence development task achievement. In other words, we can see that sympathy with nature under horticultural activity affects the formation of self and it has various desires sublimate to coordinate consciousness needed for everyday life, such as concentration, ability to solve problems and control oneself, with life. It also makes someone think of his/her past experiences and gives them an opportunity to consider matters of conflict thoroughly, and with connecting to understanding the present self-state, it helps them to get awareness of purpose by making them establish self-conception with consistency and continuance, recognize their uniqueness, and raise confidence, senses of achievement and responsibility. It also makes evident that it is effective in emotional stability by reducing psychologically maladjusted behaviors and that is possible when, un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others, they can establish positive self-conceptions through self-understanding and convincing of their value of existence and so they can fix positive self-conceptions on themselves.

Therefore, in this research, there is a difficulty in generalizing because the number of testes is too small and also it couldn't control the selection of testes and the circumstances that are able to affect variables, but for reformatory students who can not control sudden urge and desire appropriately and commit accidental irregularity, we need to develop sustainable program which can be applied in controlled environment and to draw up a general plan which can be connected to regular course. In educational field, we need to use preventing program for juveniles who come to a crisis.

부 록

1. 설문지	73
2. 원예요법 프로그램	78
3. 회기별 경험보고서 및 관찰내용	90
4. 내 마음의 등고선 그리기	101
5. 소감문	102



부록 1.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원예치료가 학생들의 심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시도되는 것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한 결과는 순수 연구를 위해서만 사용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솔직한 응답은 저의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한 영 숙

자아정체감검사

0000학교 ()학년 성명 ()

※다음은 여러분의 자아정체감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란에 V표를 하여 주십시오.

질 문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저 그렇다	그런 편이다	상당히 그렇다
1. 장래의 나는 현재의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2.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을 정할 수가 없다.					
3. 나는 남들이 아무개의 '동생' 혹은 아무개의 '딸' 이라고 부르는 것이 싫다.					
4. 나에게는 여자(남자)들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 매우 어리석어 보인다.					
5. 나는 지금의 나에게 아무런 유감이 없다.					
6.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싫다'고 대답하기가 어렵다.					
7. 나는 많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 나 자신을 잃어버다.					
8.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는 별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					
9. 나는 장래 일에 대한 결정을 미리 생각하고 싶지 않다.					
10. 나는 내가 보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내가 아주 비슷 하다고 믿는다.					

11. 나의 친구들은 내가 언제나 나 자신의 소원하는바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12. 나는 내가 보잘것 없는 존재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					
13.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주저 없이 그 이유를 말한다.					
14. 때때로 나는 전혀 나답지 않은 일들을 한다.					
15.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군중 속에 파묻혀 안정되는 것이 마음 편하다.					
16.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나는 달라진 것 같다.					
17. 나는 언니(형님)를 좋아하지만 언니(형님)와 꼭 같아지고 싶지는 않다.					
18. 내 친구들과 가족들은 내가 여러 가지 일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잘 모른다.					
19. 나는 내가 해 놓은 일들에 진정한 자부심을 느낀다.					
20. 반대를 무릅쓰고 싸우는 것보다 내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21. 우스꽝스러운 작은 일로서도 나는, 그만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22. 저녁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할 때는 나는 대개 일찍잔다.					
23. 나에게 대한 지난날의 추억은 지금의 나의 모습과 상통하는 바가 있다.					
24.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25. 나는 대개 선생들이 나에게서 기대하는 바를 잘 알고 있다.					
26.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					
27. 나는 내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28. 때때로 나는 나 자신에게까지도 생소한 존재로 여겨진다.					

29.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있는 그대로를 알아준다.					
30.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같지 않다.					
31. 나의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32. 내 친한 친구들은 나와 매우 다르다.					
33. 나는 남의 비판에 흥분하지 않는다.					
34. 중요하지 않은 결정을 내릴 때에도, 나는 대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다.					
35. 나는 나 자신을 정말 잘 안다.					
36.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자신 있게 나 자신을 터놓고 얘기를 할 수 있다.					
37. 사람들은 나 자신을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하게 된다.					
38. 나의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 지를 정말 모른다는 것이다.					
39. 나는 친척들이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말하는 것이 싫다.					
40. 우리 부모는 나를 어린애로 취급한다.					
41. 내가 찬성하지 않을 때는, 나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없다.					
42. 지난 몇 주일 동안은 내 자신이 아니었던 것 같이 느껴진다.					
43. 나는 대부분의 여자(남자)친구들과 쉽사리 개인적으로 친밀해 진다.					
44. 나는 처음에는 내가 아는 어떤 사람처럼 되려고 애쓰다가,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처럼 되려고 애쓴다.					
45. 전공을 빨리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 나는 초조하고 무서워진다.					
46. 남들은 별 어려움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47. 내가 여자(남자)라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48. 나는 나를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처럼 그려 보고 싶다.					
49. 때때로 나는 자신에게까지도 내가 신비한 존재로 생각한다.					
50.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					
51. 내 인생관은 언제나 동일하다.					
52. 나는 가끔 어느 때는 이걸 원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또 다른 것을 원하고 한다.					
53. 이만큼 성장한 이상 이제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다.					
54.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은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쉽게 알아차린다.					
55. 남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하지 않는다.					
56. 내가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나는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다.					
57. 나는 대학 혹은 고등학교에서는 중학교 혹은 초등학교 때만큼 많이 변하고 있지는 않는 것 같다.					
58. 나날이 나는 달라져 간다.					
59. 나는 항상 목표를 정해 놓고 행동한다.					
60. 사람들은 나와 나의 친한 친구를 서로 혼동한다.					
61. 나는 언제나 여대생 또는 여고생(남자대학생 또는 남고생)으로서의 나를 생각한다.					
62. 나는 선생님들 앞에서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일수가 없다.					
63. 남들이 나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는 것은 나의 강한 소신 때문이다.					
64. 이따금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리를 스친다.					

정서 안정성 검사

0000학교 ()학년 이름()

문 제	체크리스트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이다	아니다	전혀 아니다
1. 나는 쉽게 감정이 잘 상한다.					
2. 자주 긴장되고 불안하다.					
3. 나는 신경이 좀 예민하다.					
4. 친구들의 성공소식을 들으면 나는 패배자가 된 것 같다.					
5.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가끔 한다.					
6. 가끔 사소한 일로 잘 빠진다.					
7. 내 생각과 다른 사람이 있으면 불안하다.					
8. 웬지 모르게 늘 불편감을 느낀다.					
9. 나는 자주 우울해진다.					
10. 중요한 순간에 실패할까봐 불안하다.					
11. 가능만 하다면 내 자신을 많이 뜯어 고치고 싶다.					
12. 내 자신에 대해 종종 창피하게 생각한다.					
13. 갑자기 놀라고 당황하는 일이 종종 있다.					
14. 비판적인 말을 들어도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15. 나는 대체로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않는다.					
16. 나는 매사에 자신이 없다.					
17. 나는 타인의 시선을 많이 의식한다.					
18. 마음이 불안하고 안정이 잘 안 된다.					
19. 갑자기 불행한 일이 닥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20. 친구들과 같이 있으면 어색하고 마음이 불편해진다.					
21. 가만히 있지 못하고 안절부절 한다.					
22. 자주 반복되는 생각 때문에 피곤하다.					
23. 중요한 일이 생기면 소변부터 마렵다.					
24. 처음 보는 사람 앞에서는 긴장이 심하다.					
25. 정신 집중을 하기가 힘들다.					
26. 권위있고 힘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두려운 생각이 든다.					
27. 혼자 있을 때에도 불안하고 두려운 생각이 든다.					
28. 사람들 앞에 설 때 떨린다.					
29. 불치병에 걸릴까봐 걱정이다.					

부록 2. 원예요법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자기소개, 오리엔테이션 및 꽃 한 송이 포장하기	
일 시	2008년 10월 13일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근감 형성 및 동기유발 -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신뢰감을 형성 한다. 	
준비물	장미꽃, 가위, 리본, 테이프, 철사	
활 동	치 료 과 정	기대효과 및 Tip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예치료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다 - 꽃과 관련 된 별칭 짓기를 한다. 	- 긴장 완화
전 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예치료란 무엇인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한다. ②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안내한다. ③ 각자 꽃과 관련된 별칭을 지어 보도록 한다 ④ 돌아가면서 별칭과 관련지어 자신을 소개 하도록 한다. ⑤ 간단한 게임을 해본다. ⑥ 준비한 꽃 중 한 송이씩 선택하게 한다. ⑦ 꽃을 다듬게 한다. ⑧ 포장지와 리본으로 장식한다. ⑨ 옆 짝꿍에게 포장한 꽃을 선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밀감 형성 - 동기유발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람이나 얻고 싶은 것 또는 기대되는 것 등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한다. - 활동 과정에 대한 소감 발표 및 평가 	- 의사표현력 증진

프로그램명	솔방울 색 입히기	
일 시	2008년 10월 15일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꾸고 꾸밈에 따라 상황이나 가치의 변화를 알게 한다. -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볼 수 있게 한다. - 표현력을 향상 시킨다. 	
준비물	솔방울, 풀, 색 가루	
활 동	치 료 과 정	기대효과 및 Tip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간단히 짚어 봄. - 솔방울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한다. - 견본을 보여 주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구들의 표현, 느낌 존중 하기
전 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솔방울, 색 가루, 풀 등 필요한 재료를 나누어 준다. ② 솔방울에 풀을 칠한다 ③ 자신이 좋아하는 색깔의 색 가루를 풀 칠한 위에 뿌려 입힌다. ④ 색을 입히기 전과 비교해서 어떻게 달라 보이는지 이야기 해본다. ⑤ 현재 자신의 색은 어떤 색이며 어떤 색을 입혀 보고 싶은지 생각해 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한 이해 - 물건의 재활용 학습.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을 정리하고 관리 방법을 설명 한다. - 자신의 색깔에 대해 이야기 해 본다. - 활동 과정에 대한 소감 발표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현력 향상

프로그램명	솔방울 리스 만들기	
일 시	2008년 10월 20일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떠오르는 즐거운 생각이나 추억을 이야기 한다. - 나에게 숨겨진 자원이 무엇인지 알게 한다. -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준비물	리스용 와이어, 솔방울, 마른 산 수국 꽃, 글루건, 리본, 광택제	
활 동	치 료 과 정	기대효과 및 Tip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난 시간 학습에 대해 잠시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 리스의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 산 수국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기심을 유발 및 집중력 향상
전 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솔방울과 산 수국 꽃 리스용 와이어 등 재료를 나누어 준다. ② 솔방울을 와이어에 붙인다. ③ 솔방울 사이사이 마른 산 수국 꽃을 붙인다. ④ 광택제로 광을 낸다. ⑤ 리본을 묶는다. ⑥ 나 자신은 어떻게 꾸미고 싶은지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해 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의 재활용 학습. - 문제해결 능력 증대 - 자신에게 숨겨진 필요한 자원을 탐색한다.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을 정리하고 관리방법을 설명 한다. - 활동 과정에 대한 소감 발표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들 작품마다 칭찬하여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다.

프로그램명	다육식물심기	
일시	2008년 10월 22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욕구를 탐색하게 한다. - 식물이 다양한 환경에서 살고 있음을 배운다. - 나에게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자원)는 무엇인지 탐색하게 한다. 	
준비물	그린 볼, 화분, 배양토(질석, 피트모스, 펄라이트),	
활동	치 료 과 정	기대효과 및 Tip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육식물에 관하여 설명 한다 - 다육식물이 자라는 환경에 대하여 설명 한다 - 다른 식물과의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 다육식물의 종류를 이야기 해 보도록 한다. - 식재할 화분과 그린 볼을 나누어 준다.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배수층으로 펄라이트를 깔 후 혼합된 상토를 화분에 3/1 정도 담는다. ② 식물을 식재하고 상토를 덮어 뿌리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③ 화장토로 덮는다. ④ 눈을 감고 나에게 저장된 자원은 무엇이고 볼 속에서 무엇이 나왔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⑤ ④와 관련지어 각자 발표를 해 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 능력 증대 - 식물의 창조성과 강인함 배우기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을 정리하고 관리방법을 설명 한다. - 활동 과정에 대한 소감 발표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만든 식물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 발표를 통한 표현력 향상 - 정서적 안정감 증진

프로그램명	잡곡 액자 만들기	
일 시	2008년 10월 27일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목표나 방향을 알게 한다. - 집중력과 창의력을 개발한다. - 성취감과 자신감을 증대 시킨다. 	
준비물	각종 잡곡 쌀, 액자 틀, 오공 본드, 칼라 펜	
활 동	치 료 과 정	기대효과 및 Tip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의 잡곡 쌀의 이름을 이야기를 해 보게 한다. - 가장 행복했던 밥상을 생각해내어 이야기 하도록 한다. - 2인1조씩 짝을 짓도록 한다. - 실행 방법을 설명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상생활의 발견 - 조별 구성으로 구성원 간 사회성을 향상시킴
전 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직사각형의 종이 위에 그리고 싶은 그림을 복잡하지 않게 그리게 한다. ② ①그림위에 본드 칠을 하면서 각종 잡곡 쌀을 붙여 가도록 한다. ③ 날짜와 이름을 쓰도록 한다. ④ 자신의 사진첩-내 삶은 어떤 그림을 그리며 살고 싶은지, 나의 액자엔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감각 증가(공간 인지) - 창의력 향상 - 집중력 - 의사 결정력(자기결정) - 대인관계 훈련 (상호관계 증진) - 사회성 향상 - 역할 수행 능력 향상 - 협동성 향상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을 정리 한다. - 짝을 이루어 작품을 만든 소감을 나누어 보도록 한다. - 서로의 작품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긍정적 경험을 통하여 성취감 향상

프로그램명	종이꽃 만들기	
일 시	2008년 11월 3일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조적 가치를 경험하고 재활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 단점을 버리고 긍정적으로 변화 되고자 하는 사고의 전환을 도모한다. - 자신의 꿈을 탐색 해 본다. 	
준비물	주름지, 철사, 가위, 테이프	
활 동	치 료 과 정	기대효과 및 Tip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화와 조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한다 - 종이꽃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지 물어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모습을 상상하여 행복감을 느끼도록 함
전 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름지를 7cm, 4.5cm로 잘라준다. ② 잘라준 주름지를 위는 둥글게, 아래는 약간의 사선으로 오려준다. ③ 가위로 잘라준 주름지를 훑어준다. ④ 훑어준 주름지 꽃잎을 엄지손가락을 이 용해서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면 볼륨을 만든다. ⑤ 처음 꽃잎은 돌돌 말아준다. ⑥ 두 번째 꽃잎부터는 마주보며 어긋나게 꽃잎을 겹쳐준다. ⑦ 꽃철사로 묶어주고, 녹색테이프로 둘러준다. ⑧ 내 자신에게 어떤 점을 보완하여 변화 되고 싶은지, 어떤 꽃으로 피어나고 싶은지 이야기 해 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의 재활용 학습. - 문제해결 능력 증대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을 정리 한다. - 폐품활용 해본 느낌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든 작품에 대한 성취감을 통해 자존감 향상

프로그램명	포인세티아 심기	
일시	2008년 11월 10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탐색하게 한다. - 긍정적 사고를 키운다. - 내 안에 버리고 싶은 마음을 발산한다. 	
준비물	포인세티아, 화분, 상토(펠라이트, 피트모스, 버미큘라이트), 꽃삽, 대야,	
활동	치료과정	기대효과 및 Tip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크리스마스과 겨울 하면 연상 되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해 보도록 한다 - 오늘 작업 할 꽃에 대한 설명을 한다. - 캐롤을 불러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각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신감 향상.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포인세티아를 관찰 한다 ② 상토는 피트모스:펠라이트:버미큘라이트=3:1:1이 되도록 혼합한다. ③ 배합된 상토를 대야에 넣어 물을 넣고 배합 한다. ④ 용기에 상토를 1/3정도 채운다. ⑤ 포트에서 포인세티아를 꺼내어 용기에 담는다. ⑥ 나머지 부분에 상토를 채우고 마무리를 한다 ⑦ 눈을 감고 나에게 의미 있는 한 사람을 떠올려 보도록 하고 멘트를 통해 그 사람과의 감정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미 있는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긍정적 사고 증진 - 대인관계 향상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 완성 된 작품을 감상한다. - 의미 있는 그 사람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지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 활동 과정에 대한 소감 발표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만든 식물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 기쁘고 좋은 생각을 하도록 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갖도록 한다

프로그램명	분화식물 심기	
일시	2008년 11월 12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고력 및 책임감을 증진 시킨다. - 여러 식물을 심으면서 관계 속에서 나의 위치의 중요성에 대하여 인식하게 한다. - 자신의 미래에 대해 탐색해 보게 한다. 	
준비물	분화식물(사르비아, 안젤로니아, 금사철등), 화분, 상토(펄라이트, 피트모스, 버미큘라이트), 꽃삽	
활동	치료과정	기대효과 및 Tip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좋아 하는 꽃의 이름을 이야기해 보도록 한다 - 오늘 작업 할 꽃에 대한 이름을 알아 보도록 한다 - 작업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 있는 꽃의 이름을 친구들에게 이야기함으로써 자신감 향상.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준비 된 분화식물을 관찰 한다 ② 상토는 피트모스: 펄라이트:버미큘라이트=3:1:1이되도록 혼합한다. ③ 배합된 상토를 대야에 넣어 물을 넣고 배합 한다. ④ 용기에 상토를 1/3정도 채운다. ⑤ 포트에서 식물을 뽑아 용기에 담는다. ⑥ 나머지 부분에 상토를 채운다. ⑦ 나의정원엔 어떤 식물을 심고 가꿀지 상상해 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해결을 위한 사고력증진 - 치료자는 개입시기를 적절히 조절하여 대상자가 판단력이 나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 - 내면(육구) 표출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친구들의 화분과 자신의 화분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이야기를 나누어 본다. - 활동 과정에 대한 소감 발표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만든 식물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프로그램명	걸이화분	
일시	2008년 11월 17일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의위치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게 한다. - 생명체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한다. - 식물을 옮기는 작업을 통해 조심성과 집중력을 기른다. - 존재가치의 소중함을 안다. 	
준비물	식물(스킨답서스, 아이비, 임파치엔스 등), 페트병, 상토, 송곳, 끈	
활동	치료과정	기대효과 및 Tip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좋아 하는 식물을 3가지정도만 나열 해 보도록 한다 - 오늘 작업 할 식물에 대한 이름을 알아보도록 한다 - 작업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알고 있는 식물 이름을 친구들에게 이야기 함으로써 자신감 향상. -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
전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페트병을 반으로 자른다. ② 송곳으로 페트병의 좌우 양 끝에 구멍을 만든다. ③ 배수층으로 펄라이트를 깔 후 혼합된 상토를 페트병에 담는다. ④ 식물을 식재하고 상토를 덮어 뿌리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⑤ 페트병 구멍에 끈을 매달아 공중의 벽에 걸 수 있도록 한다. ⑥ 수행한 작품을 어디에 걸어 놓고 싶은지 떠올려 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건의 재활용 학습. - 주의 집중 - 문제해결 능력 증대 - 식물(생명)의 창조성과 강인함 배우기 - 식물마다의 특수성 이해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을 정리하고 관리방법을 설명 한다. - 꾸미고 싶은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 활동 과정에 대한 소감 발표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만든 식물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한다. -정서적 안정감 증진

프로그램명	수경재배	
일 시	2008년 11월 17일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물이 각기 다른 여러 환경에서 살 수 있음을 배운다. - 나는 어디에서 어떤 에너지를 지원 받고 성장하고 있는지 탐색하게 한다. - 자신의 숨은 숨겨진 모습을 발견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다. 	
준비물	개운죽, 마사토 및 색돌, 페트병, 테이프	
활 동	치료과정	기대효과 및 Tip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경재배에 관하여 설명 한다 - 개운죽에 대하여 설명 한다 - 수경재배와 분재배의 차이점을 찾아보도록 한다. - 식물에게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해 이야기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가꾸기에 관한 경험 이야기를 통한 자기표현 능력 향상 - 생명 존중 확장
전 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페트병을 3/1 정도로 자른다 ② 페트병 입구를 테이프로 감아준다 ③ 지철사를 30cm 정도로 잘라 나누어 준다 ④ 지철사로 개운죽을 좋아하는 모양으로 만든다 ⑤ 페트병 속에 마사토, 색돌을 약간 넣고 개운 죽을 넣은 후 첫째 마디만 덮을 정도로 물을 채운다. ⑥ 눈을 감고 나는 어디에서 어떤 에너지를 지원받고 성장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명체에 필요한 자원을 이해 - 식물에 대한 지식 습득 - 창의성 및 표현력 향상 - 문제해결 능력 향상 - 관찰력 증진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 했던 재료들을 정리 한다. - 눈을 감고 생각해 본 것을 발표해 보도록 한다. -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 준다 - 작업 과정에 대한 느낌과 자신의 작품에 대해서 발표하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취감을 높여 자신감을 향상시킴 - 생명존중 확장

프로그램명	허브 미니가든	
일 시	2008년 11월 19일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래의 자신의 향기(정체성)를 탐색하게 한다. - 관찰력과 정서를 순화 시킨다. 	
준비물	허브종류 5종(로즈마리, 페퍼민트, 장미허브, 라벤더 타임 등), 포트, 배양토(질석, 피트모스, 펄라이트), 난석중립.	
활 동	치 료 과 정	기대효과 및 Tip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브의 의미와 효과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 - 작업 할 허브의 이름 맞추기를 한다. - 눈을 감고 향을 느껴 보고 좋아하는 향 말하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신의 느끼는 것을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하여 표현감과 자신감 향상시킴 - 허브종류를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결정력 향상
전 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허브를 나눠주고 향을 맡고 이름을 익힌다. ② 용기의 바닥에 중립의 난석을 넣고 소립의 하이드리볼을 넣어 배수층을 만든다. ③ 질석과 피트모스, 펄라이트를 대야에 담아 혼합한다. ④ 혼합한 배양토를 먼저 넣고 허브3종을 배치한다. ⑤ 배양토를 다져가며 허브를 심도록 한다. ⑥ 표층을 덮기 위한 이끼를 깎는다. ⑦ 눈을 감고 나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는지 생각 해 보도록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한 이해력 향상 - 관찰력 - 감각기능 향상 - 내면 통찰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을 정리하고 관리방법을 설명 한다. - 나에게서는 어떤 향기가 나는지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 허브차를 마셔 보도록 한다. - 활동 과정에 대한 소감 발표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서 순화 - 자신이 만든 식물에 대한 책임감과 인내력을 갖고 키우도록 한다

프로그램명	꽃꽂이	
일 시	2008년 11월 24일	
목 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 - 어지러운 감정이 순화된다. -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쾌한 감정을 씻어 낼 수 있다. 	
준비물	국화, 플로랄 폼, 가위, 종이 컵, 리본	
활 동	치 료 과 정	기대효과 및 Tip
도 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이 좋아 하는 꽃 3가지정도만 나열해 보도록 한다 - 오늘 작업 할 꽃에 관련 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한다 - 작업 과정에 대한 설명을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 후각을 자극한다.
전 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재료를 나누어 준다. ② 종이컵 속에 물 먹은 플로랄 폼을 넣어 고정 시킨다 ③ 국화를 봉오리가 많은 것은 종이컵의 약 2배 정도 길게 자른 후 플로랄폼 중앙에 꽂는다. ④ 국화를 많이 핀 부분은 ③보다 약간 짧게 라 적당히 빈 공간에 보기 좋게 꽂는다. ⑤ 부직포를 종이컵이 감싸질 정도로 자른다. ⑥ ⑤에 리본을 묶어 부직포를 고정 시킨다. ⑦ 선물하고 싶은 사람이나 선물 받고 사람이 있는지 있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게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화는 고유한 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냄새를 맡아보게 하고 어떤 냄새와 비슷한지, 그리운지 떠올려 보도록 한다. - 식물체를 자르면서 분노, 공격성 발산
정 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을 정리 한다. - 선물하고 싶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한다. - 활동 과정에 대한 소감 발표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지러운 감정이 순화 - 성취감 - 정서적 안정감

부록 3. 회기별 경험보고서 및 관찰내용

제1회기 (10월 13일)

자기소개, 오리엔테이션 및 꽃 한 송이 포장하기

- * 나는 어떤 식물이나 꽃을 좋아 하는지, 좋아하는 식물과 관련된 별칭을 지어보자.
- * 참가하면서 어떤 기대를 했는지

송○○(민들레) : 첫 회기인데도 기쁘고 편안하다. 언젠가 민들레와 관련된 노래 가사가 좋았던 게 기억나 민들레라는 별칭을 지었다.

정○○(알로에) : 알로에는 활용도가 많은 것 같아서 별칭으로 지었다. 끈기가 키워졌으면 좋겠다. 첫 회기를 마치면서 많이 편안하다고 소감을 드러냈다. 첫인상이 강하고, 뭔가 분위기를 이끌어 갈 것 같은 강함이 엿보임.

윤○○(네잎클로버) : 꽃말이 행운이어서 별칭으로 지었다. 원예치료를 통해서 내 자신의 행동이 변화되기를 기대한다. 급하고 공격성이 강한 성격이다. 인내심이 키워졌으면 한다. 집단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 집단에서 가장 힘 있고, 두뇌가 명석해 보이며, 자기 탐색을 잘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김○○(크로커스) : 꽃말이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꽃말이 좋았던 것 같아서 별칭을 지었다. 감성이 풍부하면서도 카리스마가 있는 모습임.

김○○(개나리) : 노란색이 좋아서 별칭으로 지었고, 꽃과 식물을 접하면서 자신의 진로와도 접목시켜 생각해 보고 싶다. 좀 산만한 모습을 보임.

박○○(해바라기) : 해를 바라보는 꽃이고 식물은 햇빛이 없으면 성장 할 수 없기 때문에 별칭으로 지었다. 좀 산만한 모습을 보임.

강○○(장미) : 붉은색이 좋고 예뻐서 별칭으로 지었다. 다른 구성원들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자존감이 많이 결여된 모습, 자기 생각을 드러내는데도 어려움이 있음. 시작 전에 비해서 시간이 끝나면서는 얼굴에 긴장감이 없어지고 표정이 밝아져서 편안해 보임.

- * 차렷 경례하며 인사하는 모습도 그렇고 첫 회기라 그런지 너무 경직되어 있다.

제2회기 (10월 15일)

솔방울 색 입히기

* 내 자신은 어떤 색이며, 어떤 색을 입혀보고 싶은지

민들레 : 지금까지의 나는 검정색이었다. 하늘을 닮은 파란색을 입히고 싶다.

네잎클로버 : 초록색으로 입히고 싶다. 초록색은 가장 쾌적하고 편안한 색이다.

무심코 지나치던 솔방울이 이렇게 멋지게 변화되는 게 폐품을 잘 활용하면 멋있게 변화될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됐다.

크로커스 : 아주 독특하다. '생각이 에너지다' 라는 표어가 생각난다. 예쁘고 멋있다. 지금까지의 나의 모습은 검정색이다. 파란색을 입히고 싶다, 파란색은 하늘색이다, 희망적인 색이니까.

개나리 : 지금까지는 검정색이었다, 하얀색으로 입히고 싶다. 하얀색 위에는 어떤 색이나 새로 칠 할 수 있으니까... 무심코 지나쳤던 솔방울에 관심이 가니까 이렇게 멋있게 변화가 되었다.

해바라기 : 노란색으로 입히고 싶다, 노란색이 좋다, 노란색 하면 금이 연상된다. 금은 돈이니까.

장미 : 빨강색이 좋다, 빨강색으로 입히고 싶다.

* 주변 자연환경으로 관심이 간다. 분위기가 인사부터 전 회기에 비해서 부드러워졌다.

제3회기 (10월 20일)

솔방울 리스 만들기

* 내 자신은 어떻게 꾸미고 싶은지

* 식물의 주기와 내 삶의 주기를 비교해서 생각해 보기

네잎클로버 : 가장 오랜 시간동안 집중해서 작업함, 다양하게 연출하고 사용범위도 광범위하도록 제작함. 자신의 인생을 계절에 비유한다면 겨울이라고 표현, 겨울은 휴식기이며, 이 기간을 잘 활용하면 따뜻한 봄을 잘 맞이하고 꽃 피울 수 있을 것 같다.

크로커스 : 작업을 하는 건 재미있고, 흥미로우나... 직면을 거부함, (약간 산만한 모습을 보임)

알로에 : 강한 집중력을 갖고 리스를 프로 이상으로 감각과 표현력이 뛰어나도록 제작함. 좀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달려가면 그래도 중간 정도는 하지 않겠는가

해바라기 : 맨 먼저 발표함, 오늘 작업 마무리하고 많이 후회가 된다. 다음엔 좀 더 집중력을 갖고 제대로 하겠다. 다른 구성원들의 작품을 보니 자신이 미진한 부분이 많이 보였다. 누구의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드느냐는 질문에 알로에 작품에 마음이 간다고... 나는 하루의 시간과 계절로 보면 어디쯤 서 있을까란 생각엔 복잡한 느낌이 많이 떠올랐다고... 그리고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어서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개나리 : 다시 만든다면 정말 멋있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자신의 작품엔 뭔가 2%가 부족한 느낌이 든다. 다시 만든다면 어떤 부분을 보충하고 싶느냐는 질문에 꽃을 더 가득 채우고 싶다고... 하루 일과로 본다면 8시쯤에 자신이 서 있을 것 같다고 하면서 좀 늦잠 잤고 그래서 부모님께 꾸중 듣고 야단 좀 맞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하고 그럼 부모님과 맞대어 싸우고 하루를 포기 할래? 했더니 아니요 라고 대답, 그럼 어떡할 건데? 했더니 서둘러 집중력을 갖고 뛰어야죠 라고 대답함.

민들레 : 공간 여백이 많은 걸 좋아하고 산만한 모습을 보이며 치료사의 안내를 강하게 거부하는 고집스러움을 보임. 이후 작업시간 동안의 자신의 부족함, 미진함 등 자신의 잘못 된 생각이나 행동을 솔직히 인정하는 태도를 보임.

장미 : 수국을 군데군데 더 붙여 놓아도 좋을 것 같은데 하면서 웃기만 함. 나이가 제일 어려서인지 다른 구성원들이 다 선택하고 남은 재료들을 챙기는 모습을 보임, 내 것을 당당히 챙기지 못하는 자존감이 많이 결여 된 모습을 보임.

* 끝 무렵 지켜보시던 선생님이 장미를 보곤 많이 놀라하심. 진행자에게 늘 저렇게 끝까지 가만히 앉아 작업하느냐고 물음.

제4회기 (10월 22일)

다육식물 심기

* 그린 볼에서 무엇이 나왔으면 좋겠는가

네잎클로버 : 돈이 나왔으면 좋겠다. 집, 자동차, 섬 등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해 볼 수 있다면 행복할 것 같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도 돕고 싶다. 가수 김장훈이 자신은 검소하게 살면서도 주변을 위해 많은 것을 내 놓는 모습을 보고 그가 좋아졌다. 그린 볼은 사막에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 든다.

크로커스 : 대학 졸업장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편안할 것 같다. 뭔가 준비가 되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을 갖고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개나리 : 향기로운 꽃, 음식을 잘하는 손 같은... 나에게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 나왔으면 좋겠다. 설레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기대감이 들었다.

민들레 : 돈이 나왔으면 좋겠다. 맛있는 것을 싼것 사먹고 골프(운동)를 마음대로 해보면 좋겠다

알로에 : 게임기가 나와서 원없이 해봤으면 좋겠다. 짜증이 많고 인내심이 없어서 이 부분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그것도 좋겠다.

진달래 : 피망이 나왔으면 좋겠다. 피자가 먹고 싶어서... 그리고 키가 쑥 자라서 농구를 잘 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장미 : 토마토가 나왔으면... 키도 크고 힘이 좋은 체력을 지닐 수 있다면 마라토너가 되고 싶다.

해바라기 : 향기로운(좋은 향기) 해바라기! 집을 해바라기로 가득 장식하겠다. 그러면 행복할 것 같다.

* 짤막하던 단답형 표현이 좀더 길게 서술하듯이 표현한다.

제5회기 (10월27일)

잡곡 액자 만들기

* 나의 액자엔 어떤 그림을 그려놓고 싶은지

개나리 : 골프장과 PGA에서 우승하는 그림을 그려 놓고 싶다.

크로커스 : 멋있는 대학캠퍼스와 활발히 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싶다.

수선화 : 농구경기를 하는 그림을 그려 놓겠다.

네잎클로버 : 커다란 꽃을 그려 넣겠다. 그러나 나의 액자엔 빈 여백이 많을 것 같다. 아직까지도 구체화된 꿈이 별로 없다. 오늘을 계기로 나 자신에 대해 구체적으로 많이 생각해 보겠다.

진달래 : 제빵 기술자가 되어 돈도 많이 벌고 싶다. 어머니에게 효도하고 싶다.

장미 : 이봉조를 그려놓고 싶다. 마라토너가 되고 싶다. 달리는 건 자신 있다.

* 흥미있게 집중력을 갖고 수행한다. 옆 친구들과 경쟁하듯이 서로의 작품을 모방하며 끝날 시간이 다되었다고 해도 수행하던 작품을 그만두려 하지 않아 평가를 제대로 못했다. 네잎클로버는 지나칠 정도로 꼼꼼하고 창의력이 뛰어나다.

6회기 (11월 3일)

종이꽃 만들기

* 나는 어떤 꽃으로 피어나고 싶은지

민들레 : 홀로 피어도 어색하지 않게 주변과 어울리는 꽃으로 피어나고 싶다.

알로에 : 알로에처럼 활용도가 많고 향기 나는 꽃으로 피어나고 싶다.

네잎클로버 : 적당한 크기의 아이보리 빛 꽃으로 금방 시들지 않고 오래 피어 있는 꽃이면 좋겠다.

크로커스 : 꽃이면 향기가 짙은 꽃으로 피어나고 싶고, 모든 사람들이 선호하는 꽃이면 더욱 좋겠다.

해바라기 : 목련꽃으로 피어나고 싶다. 엄마가 좋아하던 꽃이기 때문에

개나리 : 노란 개나리꽃으로 피어나면 좋겠다. 추운 겨울을 끝없이 이겨내어 이른 봄에 피어나 사람들에게 따뜻한 느낌을 전할 수 있으니까

장미 : 빨간 장미로 피어나고 싶다. 강렬하면서도 예쁘다.

수선화 : 야생화로 피어나겠다.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홀로 피어 끝벌레를 끌어들이고 폼 찢을 수 있으니까

* 네잎클로버가 마무리하면서 자기 앞에 있는 것들은 스스로 각자 정리하자라고 제안함. 초등학생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장미와 진달래는 작품을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들로 인해 다른 회기에 비해 좀 산만하고 집중력이 떨어짐.

제7회기 (11월10일)

포인세티아 심기

* 크리스마스 하면 연상되는 것들은 무엇인지, 행복했던 기억을 떠올려 보자

네잎클로버 : 크리스마스 꽃이어서 그런지 빨간 꽃이 풍성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크로커스 : 여자 친구에게 선물하고 싶다. 예전에는 자신이 초라해서 다가갈 수 없었는데 검정고시 합격하고 또 이 활동을 통해서 당당하고 위축되지 않게 다가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민들레 : 오늘 작업한 것이 가장 마음에 든다. 풍성한 느낌이 들고, 행복했던 가족들에 대한 기억들이 떠오르고, 흰 눈이 생각난다.

개나리 : 가장 많은 말을 했고, 구성원들로부터 가장 다가가고 싶고 다가와 주었으면 하는 사람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다. 굉장히 수용적이고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많이 쑥스러워 하면서도 좋아하는 표정이 칭찬에 익숙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수선화 : 어머니가 생각났다. 이 꽃을 선물 받으시면 많이 기뻐하셨을 거다. 어머니는 늘 내 편이셨고 내게 기대도 많이 했는데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했다. 지금 이곳에서의 생활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진달래(진우) : 이 꽃을 아버지에게 선물하고 싶고 아버지가 많이 그립고 생각이 난다.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어머니는 몸이 많이 불편하시다.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서 돈도 많이 벌고 효도하고 싶다.

장미 : 할머니에게 이 꽃을 선물하고 싶다. 할머니가 어려운데도 나를 키워주셨고 참 많이 예뻐해 주셨다.

해바라기 : 네잎클로버에게 선물하고 싶다. 마음 한편으로 서운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면 나에게 잘 다가오고 잘 대해 줄 것 같다. 네잎클로버와 가깝게 지내고 싶다.

* 꽃 이름을 재차 물으며, 집단원간에도 평소에 서로에 대해 자신이 드러내지 못했던 감정을 드러낸다.

제8회기 (11월 12일)

분화식물 심기

* 나의 정원엔 어떤 식물들을 심고 가꾸고 싶은지

네잎클로버 : 내 자식인 것 같다, 보살펴 줘야 될 것 같은... 내 정원엔 포도나무를 심고 싶다, 어렸을 때 집에 포도나무 한그루를 심었는데 점점 자라 내가 성장하는 모습과 비슷하게 느껴졌다.

크로커스 : 내 정원엔 각종 먹거리 야채와 과일을 심고 싶다, 손수 재배하여 풍성한 수확을 누리는 기쁨을 맛보고 싶다, 그리고 벚꽃을 한 그루 심고 싶다, 봄에 피는 꽃이기 때문이다, 추운 겨울 동안 계획과 인내력을 갖고 지내다보면 꽃을 피울 수 있으니까, 이 꽃이 활짝 피면 내 인생도 꽃 피울 수 있을 것 같다, 오늘 작업은 생명감을 느낀다, 지금까지는 무심코 꽃을 밟고 다녔는데... 꽃들을 내가 돌봐 주지 않으면 죽게 되니까 책임감도 느끼게 된다.

알로에 : 내 정원엔 딸기를 심겠다, 할머니 집에 가면 산딸기가 있어 빨간 딸기를 따 먹었다, 늘 따뜻하게 보듬어 주시고 착하신 할머니가 생각나고 그립다.

해바라기 : 정원에 오이를 심겠다, 오이는 갈증을 해소시켜 주고 술을 담을 수 있다. 맛사지도 할 수 있다, 어머니가 내 얼굴에 오이팩을 해 주시곤 했다, 보고 싶다, 그리고 방안 가득 해바라기를 심겠다, 그러면 따뜻할 것 같다.

민들레 : 방울토마토를 심겠다, 예전에 방울토마토를 한번 심어 봤는데 성공적으로 키우지를 못했다, 다시 심는다면 책임감 있게 성공적으로 잘 키워 내겠다. 하귤 나무도 심겠다, 예전에 친구랑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까지 걸어가면서 길가에 귤을 따서 장난치던 즐거웠던 기억이 난다.

개나리 : 작업한 꽃이 어떻게 피고 지는지 변화감이 기대된다.

장미 : 정원에 장미를 심겠다, 빨간색이 가장 예뻐서 빨간 장미를 심겠다.

* 식물을 통해 자신을 탐색하는 모습을 보임.

제10회기 (11월 17일)

수경재배 (개운죽)

* 지금 나의 위치는

* 나는 어디에서 어떤 에너지를 지원받고 성장하고 있으며 나의 자원은 무엇인지

네잎클로버 : 중간 크기를 고름. 중간 것이 좋다. 모든 게 평범하고 넘치지도 모
자라지도 않는 중간 정도, 평균적이면 좋을 것 같다.

장미 : 제일 큰 것을 택함. 자신은 체력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너무 빈약하다.

알로에 : 제일 작은 것에서 이후 중간 것으로 변경, 큰 것만큼 자라겠다는 앞도
보고 뒤도 돌아보는 자신이 되겠다. 작고 미미하지만 잘 자라 크게 자란
것 못지않게 성장하겠다.

해바라기 : 큰 것을 택함. 키가 작아 키 크는 게 소원이었다. 키가 크면 품도 나
고 좀 더 당당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에게 환경적인 자원은 빈약하다. 그
러나 굴하지 않고 오뎅이처럼 늘 일어 설 것이다.

크로커스 : 중간 것을 택함. 호텔리어가 되고 싶고, 뭐든 중간 정도, 평범하면 좋
을 것 같다.

진달래 : 큰 것을 택함. 키가 작아 숲도 잘 안 들어가고 몸싸움에서도 밀릴 땐
속상했었다. 나는 뺨이 없다.

수선화 : 작은 것을 택함. 물과 관련 된 것을 보니 술집을 경영하고 싶은 생각이
든다. 단 20대만 출입할 수 있는... 뭔가 건전하면서도 그 세대만이 통 할
수 있는... 나이가 들어서도 그럴 수 있겠는가 했더니 나이가 들면서는 그
나이에 맞게 간다고...

민들레 : 중간 것을 택함. 자신은 크지도 작지도 않고, 아주 평범하다고...

제11회기 (11월 19일)

허브 미니가든

* 나에게선 어떤 향기가 날까?

크로커스 : 내 향기는 그리 산뜻하지 못한 것 같다. 페퍼민트 향 같은 시원한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

네잎클로버 : 내 향기는 복합적인 향기, 시시때때로 변화무쌍한 향기라고 할 수 있다. 간혹 향긋한 향기도 나지만 더욱 향긋한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

개나리 : 내 향기는 조류(새 우리 같이 간혹 역겨운)같이 툭툭 쏘는 향기이다. 때에 따라 청국장 같은 향기도 난다. 하지만 편안하고 구수한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

수선화 : 풀냄새 (잡초)같은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 재생력있고 끈기가 있는...

민들레 : 음식 쓰레기 같은 냄새가 난다고 하겠지만 진짜 향기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초코렛 향기가 난다.

해바라기 : 해바라기 같은 향기, 담백하고 단순하며 깔끔한 향기, 늘 새로운 향기가 났으면 좋겠다.

장미 : 나의 향기는 수수하고 촌스러우면서도 또한 가시가 있다. 언제 어디로 어떻게 튈지 예측할 수 없는... (구성원들이 그냥 순수한 향기가 나는 모습이 좋을 것 같다고 동시에 피드백을 줌)

진달래 : 퀘퀘한 바다 향기가 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가는 것처럼 변화가 있으면서 넓고 깊은 바다 빛깔 같은 향기면 좋겠다. 동료들은 이구동성으로 퀘퀘한 향기가 난다고 하자 웬지 긍정하고 싶지 않은 씩씩한 표정을 지음.

* 집단원들의 피드백에 장미에게 나를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한번 용기를 내어 드러내 보라고 했더니 금방 네잎클로버에게 지시적인 피드백을 보냄, 이에 네잎클로버가 처음에는 화를 버럭 냈다가 이내 수그러들며 장미를 편하게 대해줌. 옆 동료들이 많이 변했네 라는 피드백을 함. 부정적인 피드백까지도 자유롭게 오고 간다.

제12회기 (11월 24일)

꽃꽂이

* 누구에게 꽃을 선물하고 싶은지 의미있는 사람 떠올려보자

네잎클로버 : 친구들이 생각났다. 검정고시를 패스하긴 했지만 중학교 때 말쑥을 부리고 학교를 중퇴했다. 중학교 1학년으로 되돌아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제대로 시험 때는 공부도 하고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귀고 싶다. 지금의 내가 아닌 모습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같다.

장미 : 아버지가 생각났다. 아버지는 4년 전에 돌아가셨다. 잠시 눈을 감고 만난 아버지는 하늘나라에서 행복해 보였다. 이렇게 소년원 생활을 하는 지금의 나 자신의 모습을 실제로 마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해바라기 : 어머니가 떠올랐다. 그림다. 어머니가 안 계셔서 난 힘들고 외로웠다. 어머니 생각을 하면 화도 난다. 나를 이렇게 남겨두고 너무 빨리 먼저 가셨기 때문이다. 우리 어머니는 참 좋은 분이셨다. (눈물을 글썽 거리며 더듬으면서 더 이상 노출을 하지 않음) - 다가가서 따뜻하게 등을 거려 줘

진달래 : 꽃바구니를 들고 온성학교 때 선생님을 찾아뵙고 선물하고 싶다. 선생님이 늘 배려해 주셨고 아껴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다시는 선생님(진행자)을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크로커스 : 여자 친구 생각이 났다. 전에는 그런 생각이 안 들었는데 이제는 너 그렇게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나에 대한 부담감 없이 자유롭게 자신의 길을 갔으면 좋겠다.

개나리 : 어머니 생각이 났다. 어머니가 해주신 따뜻한 밥이 그림다. 가출했다 집으로 들어가서 먹었던 밥맛이 꿀맛이었다. 늘 따뜻하고 행복한 밥상을 마주하고 싶다. 집보다 편하고 따뜻한 곳이 없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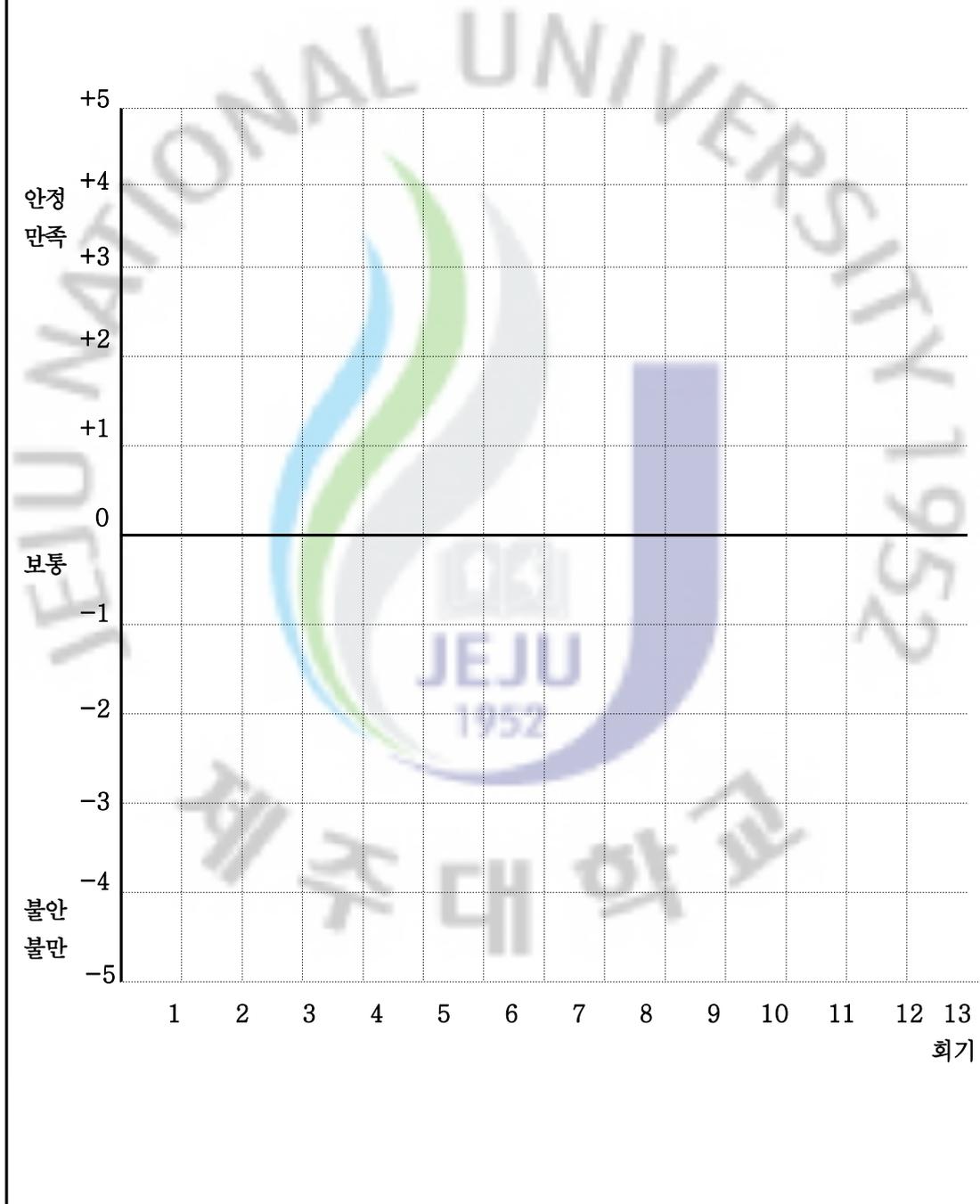
수선화 : 어머니 생각이 났다...

* 크로커스가 여자 친구에 대해 처음보다 많이 마음이 너그러워짐을 알 수 있다.

* 국화꽃을 들고 방에 들어서는 순간 표정들이 너무 밝았다. 너무 행복해 하는 것 같아 작업 시간 내내 이들이 꽃처럼 보였다.

부록 4. 내 마음의 등고선 그리기

※ 원예활동을 통해 내 자신을 알고 이해하며 정서적 안정감을 얻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5부터 -5까지 나타내 봅시다.



부록 5. 소 감 문

	내 용
네잎 클로버	<p>이 원예요법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전에는 이름조차도 몰랐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석해서 뭘 하지? 하는 심정이었는데 1회기, 2회기... 계속 참석하다 보니 평소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생명의 소중함도 알게 되었고, 통제가 잘 안되어 공격적이 되곤 하던 나의 감정도 조절 되는 듯하며,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부정적이었는데 긍정적으로 매사에 신중하게 처신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긴 것 같아 좋았다.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꽃들을 만져보고 테코레이션하는 시간도 가져 보니까 좋아서, 원예프로그램 시간이 기다려지고 참여하는 시간이 즐거웠는데 너무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 더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p>
알로에	<p>원예활동을 시작하기 전 내 마음을 살펴본다면 짜증도 많고, 욕을 하는 언어폭력도 많았다. 하지만 원예활동에 참여하면서 꽃도 심고, 장식품도 만드는 등 하면 할수록 나에게도 작은 변화가 생겼다. 이제는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주변 후배들을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변화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생긴 것이다. 지금까지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 또한 마음이 안정감을 찾은 것도 중요한 변화다. 이렇게 헤어지는 것이 아쉽고, 첫 번째 만남은 이런 모습밖에 보여 드리지 못했지만 다음 만날 기회가 있을 때는 한결 성숙해지고, 성공한 나를 보여 드릴 것이다.</p>
수선화	<p>원예활동을 하면서 꽃을 만져보고, 심어보고 하였다. 참 신기한 것도 있었고, 재미도 있었다. 같이 여기 있는 친구들과 흙을 만지고 꽃의 향기를 맡으면서 더욱 친해진 것 같다. 솔직히 처음 시작 할 때는 귀찮고 짜증이 났는데 회기를 거듭 할수록 차분한 마음도 생긴 것 같아서 좋았다. 개인적으로는 허브로 비누도 만들어 보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조금 아쉽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다.</p>

크로커스	<p>13회기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깨닫게 된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나쁜 버릇들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짐으로 인하여 나의 행동 하나하나가 올바르게 바뀌어 나가 나의 자아에 큰 영향을 미쳤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 좋았다. 처음 시작 때보다 많이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이 바뀌어 너무 좋았고, 생명체를 바라보며 책임감과 인내력이 길러지다 보니 내 자신이 건강해지는 것 같아 마음의 쉽터처럼 여겨졌다. 다시 한번 원예활동 시간에 참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의 성격에 많은 도움을 주는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기에 따뜻한 봄에 새로 피어나는 새싹처럼 참여하고 싶다.</p>
개나리	<p>식물을 직접 키우면서 내가 잘 보살피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는 뿌듯하고 점점 더 잘 컸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돌보게 되었다. 때론 친구처럼 같이 말도 해보고...</p>
민들레	<p>원예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많이 달라진 제가 된 것 같다. 평소에 접해보지 못했던 꽃과 관련된 것들을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불편함도 있었지만 계속 하다보니까 흥미도 생기게 되어 참으로 좋았다. 다음에 이런 기회가 다시 온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해 보아야겠다.</p>
해바라기	<p>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제 자신이 변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고, 여러 가지 꽃을 심으면서 예전에는 꽃을 꺾고, 뜯고 하였는데 식물을 심고 키워 보면서 생명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이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으면 한다.</p>
장미	<p>처음 시작 시간에 장미를 포장하여 짝꿍에게 선물하는 것이 좋았다. 어려웠던 동료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서... 좋은 모습의 청소년으로 성장하겠다.</p>
진달래	<p>흥미로웠다. 다시는 이곳에서 선생님(진행자)을 만나지 않도록 생활하겠다.</p>